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년 10월 2일(화)

13:00 - 16:0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일/정/표

개회사 (13:00~13:10)

임경훈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부 조사결과 발표] 13:10~14:20

2018년 한국인의 통일의식

발표1. 조사개요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2. 통일에 대한 인식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발표3.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발표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나용우 (통일연구원)

발표5.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6. 국민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7.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김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희정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제2부 패널토론] 14:40~16:00

대 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사회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패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강택 (통일연구원)

황승희 (통일부 정책협력과)

이영중 (중앙일보)

목차

9	발표1. 조사개요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5	발표2. 통일에 대한 인식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25	발표3.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51	발표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나용우 (통일연구원)
69	발표5.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93	발표6. 국민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11	발표7.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김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희정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2018 통일민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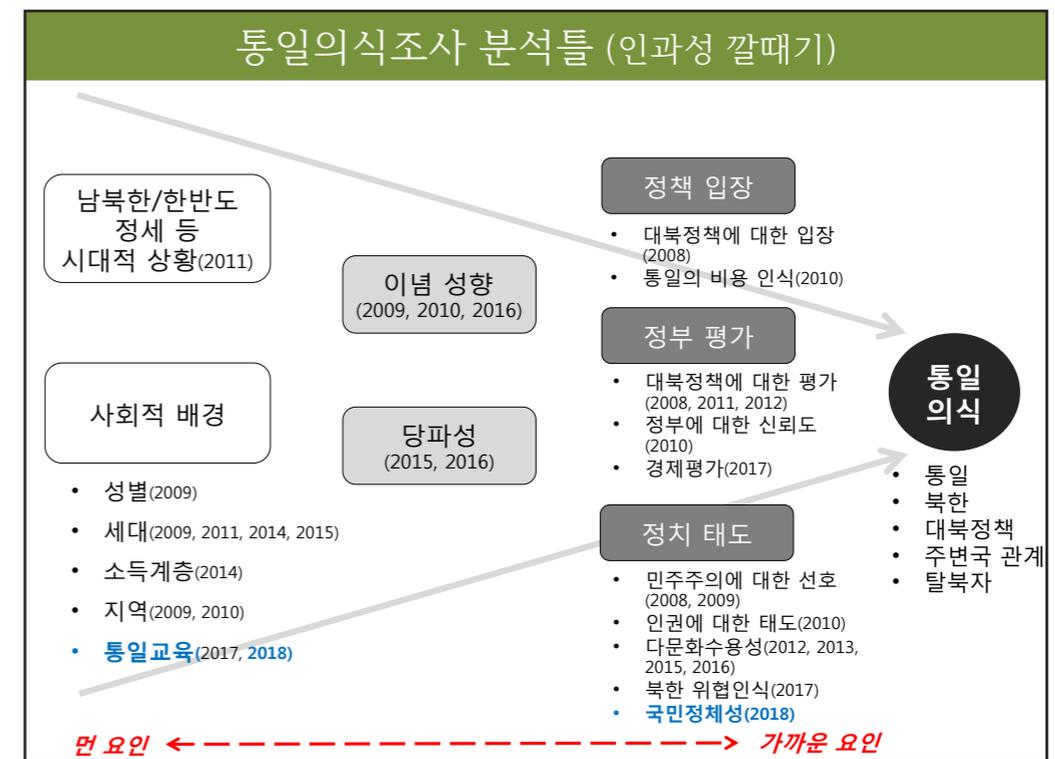
발표 1

조사개요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일지

시기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해 신년사 발표(1.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차: 1.9, 2차: 1.17)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2.9)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특별사절단 방북(3.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3차, 3.29)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4.27) 및 '판문점 선언' 채택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위원장 中 시진핑 국가주석 회담(5.7) 트럼프 美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발표(5.10)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5.24) 트럼프 美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5.24)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5.2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 개최(6.12)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北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7.6-7)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고위급회담 개최(4차, 8.13) 이산가족 상봉(8.20-22, 24-26)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9.18) 및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9.24)

2018 통일의식조사 기본 내용

< 표본 >

-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 표본크기: 1,2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표본오차: ± 2.8% (95% 신뢰수준)

< 조사 방법 >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조사기간: 2017년 7월 12일 ~ 8월 3일 (23일간)
- 가중치: 시/도별(16개), 성별(2개), 연령별(5개)로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부여

2018 통일의식조사 진행 일지

시기	내용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통일의식조사 집필진 구성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집필진 회의 개최(4.6) 및 설문지 수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갤럽 측과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논의(6.7)
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12일 ~ 8월 3일 간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결과 산출 및 집필진 송부(8.22) 2차 집필진 회의 개최(8.30)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발표회 개최(10.2)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행본 집필 및 발간
2019.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사회과학자료원(KOSSDA) 기탁

2018 통일민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발표 2

통일에 대한 인식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IPUS 통일의식조사 - 통일인식 -

송영훈
(강원대학교)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
(2018. 10. 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통일의 이미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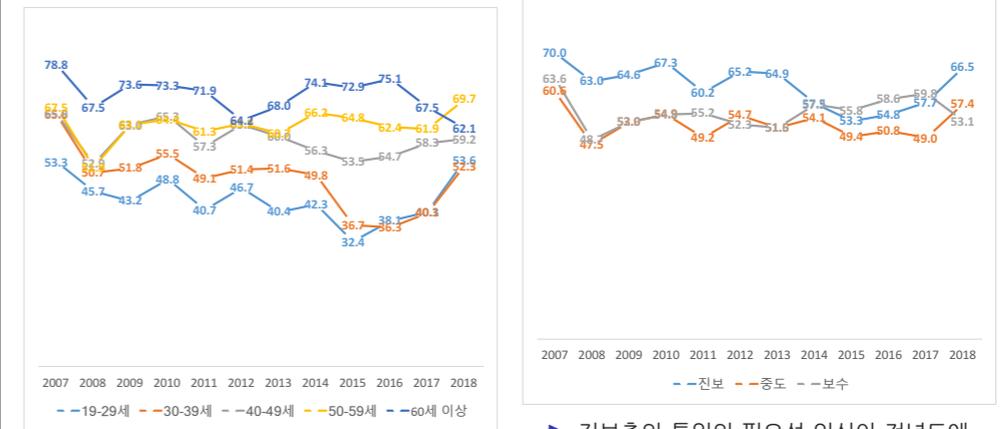
통일의 이미지	백분율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75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25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5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와 지는 것	7.17
기타	0.25
무응답	0.08
합계	1,200

- ▶ 통일이라고 했을 때 남북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떠오른다는 국민들이 58.75%로 가장 많았음.
- ▶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14.25%)과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19.5%)을 떠올리게 된다는 사람도 적다고 볼 수 없음
- ▶ 궁극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바라며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요인별 통일의 이미지

구분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무응답	N
성별	남자	57.6	15.1	19.4	7.6	0.3	0.0	609
	여자	59.9	13.4	19.6	6.8	0.2	0.2	591
연령대	19-29세	61.7	10.8	17.1	9.9	0.5	0.0	222
	30-39세	53.2	16.2	20.7	9.5	0.5	0.0	222
	40-49세	57.3	16.9	20.0	5.4	0.4	0.0	260
	50-59세	58.2	12.3	23.0	6.5	0.0	0.0	261
	60세 이상	63.4	14.9	16.2	5.1	0.0	0.4	235
정치적 성향	진보적	57.4	16.3	18.2	7.6	0.5	0.0	406
	중도	58.5	13.9	20.5	7.0	0.0	0.2	585
	보수적	62.2	11.5	19.1	6.7	0.5	0.0	209
경제 만족도	만족	57.9	15.3	19.9	6.9	0.0	0.0	261
	불만족	59.0	14.0	19.4	7.2	0.3	0.1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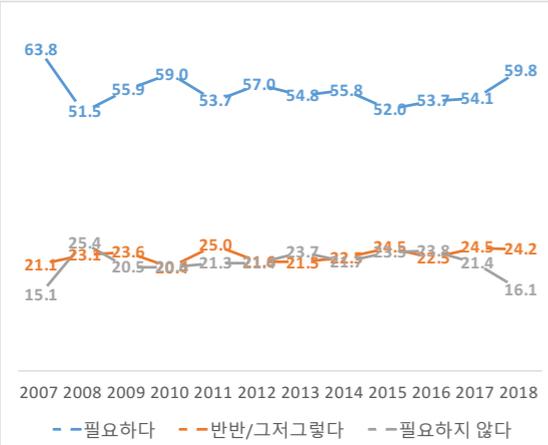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세대와 정치적 성향 효과



- ▶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전년도보다 12%p 이상 증가
- ▶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 ▶ 진보층의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증가
- ▶ 중도층에서도 증가; 보수층에서는 감소
-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정부효과가 있는 것인가?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8%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으며, 2017년 보다 5.7% 증가하였음.
- ▶ 매우 필요하다: 18.0%→21.92%, 필요하다: 36.08%→37.83%
- ▶ '반반/그저그렇다'는 응답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정형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 ▶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보다 연이어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정책적 실험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	같은 민족이니 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민도 잘살 수 있도록	한국인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2007	50.6	8.9	19.2	1.8	18.7
2008	58.4	6.5	14.4	2.9	17.2
2009	44.0	8.5	23.4	4.2	18.5
2010	43.1	7.0	24.1	4.0	20.7
2011	41.7	7.2	27.2	4.8	17.7
2012	45.9	9.1	25.3	4.4	14.5
2013	40.3	8.3	30.8	5.5	14.2
2014	42.4	8.8	26.9	3.8	17.6
2015	41.9	11.5	25.7	6.2	14.1
2016	39.0	12.2	29.2	4.8	14.2
2017	40.3	10.3	32.5	3.9	12.9
2018	45.1	6.9	31.4	3.4	12.9

- ▶ 2017년에 이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여 45.1%임
- ▶ 2007년 이후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은 전년과 약간 낮은 31.4%임
- ▶ 민족의 분단 해소와 전쟁 위협의 해소라는 두 축이 통일 담론을 주도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조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가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지지 또는 현실적인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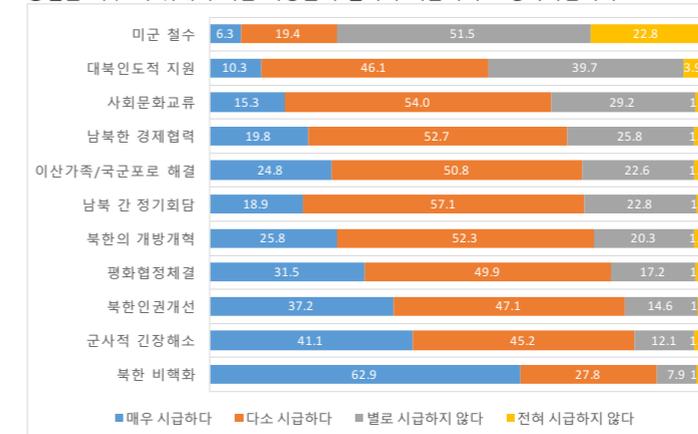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백분율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33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3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4.67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7.6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33
기타	0.17
무응답	0.5
합계(N)	1,200

- ▶ 국민들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때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큼
- ▶ 미래 사건의 비용에 대한 기대인식에 현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됨
- ▶ 따라서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책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북한의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인권개선, 평화협정체결 순임.
- ▶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전쟁 이후 계속된 군사적 긴장의 해소가 우선임
- ▶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정책의 전제조건이 된다면 정책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도 유의해야함

통일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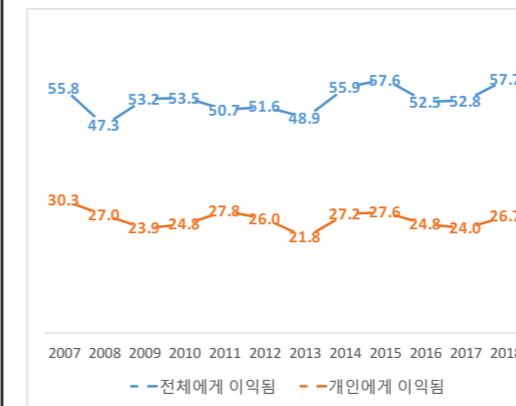
남북한 통일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려도 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2007	10.6	70.6	11.8	7.0
2008	9.7	64.8	17.1	8.5
2009	8.6	68.3	15.6	7.5
2010	10.0	67.0	16.1	6.9
2011	9.7	67.0	15.2	8.2
2012	9.6	65.1	18.3	7.0
2013	11.3	61.8	18.9	8.0
2014	12.4	61.0	19.2	7.4
2015	12.6	57.8	20.9	8.7
2016	13.4	54.5	22.5	9.6
2017	12.8	54.6	24.1	8.6
2018	9.9	67.7	16.7	5.8

-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응답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낮아짐
- ▶ 점진적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67.7%임
- ▶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2018년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으로 인해 여건의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서 2018년에는 줄어들었음

통일의 이익: 사회 vs.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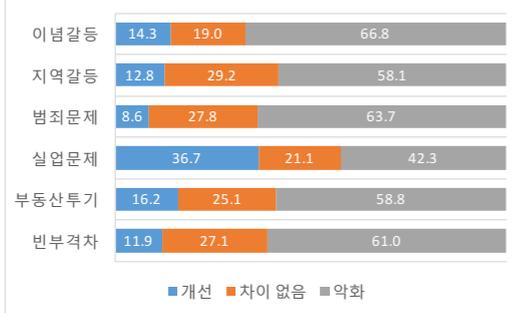
- ▶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통일이 한국사회 전체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57.7%를 기록함
- ▶ 통일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26.7%임
- ▶ 아직까지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 ▶ 매우 정형화된 조사결과임.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 전망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실업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만, 사회문제 개선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
- ▶ 전년도 대비: 이념갈등 9.2 → 14.3, 지역갈등 8.6 → 12.8, 범죄문제 7.4 → 8.6, 실업 24.1 → 36.7, 부동산투기 17.3 → 16.2, 빈부격차 16.8 → 11.9
- ▶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과 국제적 환경에 대응이라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성**이라는 세 측면을 고려해야함.
- ▶ 통일담론의 인식론적 다양성 확보가 요구됨.

학교 통일 교육의 내용

학교 통일교육 내용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반공 및 안보	34.2	52.3	68.5	81.2	83.4
북한에 대한 이해	13.1	13.1	12.3	6.5	6.0
탈북자와 다문화	18.0	10.4	4.6	2.7	3.4
자유민주주의 가치	18.0	15.8	10.4	5.8	6.4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10.4	6.3	2.3	3.1	0.9
통일의 이익	6.3	2.3	1.9	0.8	0.0

- ▶ 세대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임
- ▶ 그런데 **학교 통일 교육이 평화 중심의 평화교육, 평화문화융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공급자의 변화와 준비가 요구됨**

학교 통일 교육의 내용

학교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교 통일교육 내용	백분율
반공 및 안보	64.8
북한에 대한 이해	10.1
탈북자와 다문화	7.5
자유민주주의 가치	11.0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4.4
통일의 이익	2.2

- ▶ 학교 통일 교육이 안보 중심 교육과 북한 이해 교육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반공 및 안보 교육이 강화되었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에도 북한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었음
- ▶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평화와 통일을 두 축으로 하는 학교 통일 교육을 변화가 필요함

사회 통일 교육의 내용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통일교육	백분율
반공 및 안보	40.3
북한에 대한 이해	10.0
탈북자와 다문화	20.8
자유민주주의 가치	16.9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5.8
통일의 이익	6.2

- ▶ 사회통일 교육도 반공 및 안보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만, 탈북자와 다문화에 대한 내용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 ▶ 정규 학교교육과는 달리 사회에서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음

사회 통일 교육의 내용

사회통일교육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반공 및 안보	27.9	34.2	36.5	47.1	54.0
북한에 대한 이해	7.7	10.4	12.3	10.7	8.5
탈북자와 다문화	27.9	23.9	19.6	16.9	17.0
자유민주주의 가치	21.6	18.5	18.5	14.9	11.5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7.2	5.9	5.4	5.8	5.1
통일의 이익	7.7	7.2	7.7	4.6	3.8

- ▶ 연령대에 따라 접하는 통일 관련 내용들도 매우 다름
- ▶ 청년층은 반공 및 안보,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음

논의 및 시사점

-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민들의 통일인식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 ▶ 통일의 상을 남북의 하나된 국가를 완성한다는 최종의 모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과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의 상이 형성될 수 있음
- ▶ 현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성공적일 때 통일에 대한 부담 혹은 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여지가 있음
- ▶ 통일정책 중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인권 개선, 평화협정체결 등 한반도의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들이었는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여 나가야겠지만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음
- ▶ 학교통일교육이나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가 있어왔지만, 아직 그 내용이 안보와 북한의 이해, 탈북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 ▶ 통일이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뤄가는 역사적 사건이라면 북한을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함
- ▶ 이를 위하여 교육공급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됨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발표 3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목 차

I. 북한의 존재 인식

1.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북한정권 신뢰도
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4.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III.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1.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2. 북한정권 불안정 예측

IV. 북한의 위협 인식

1.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 지역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3. 연령대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V.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사회 인지도
2.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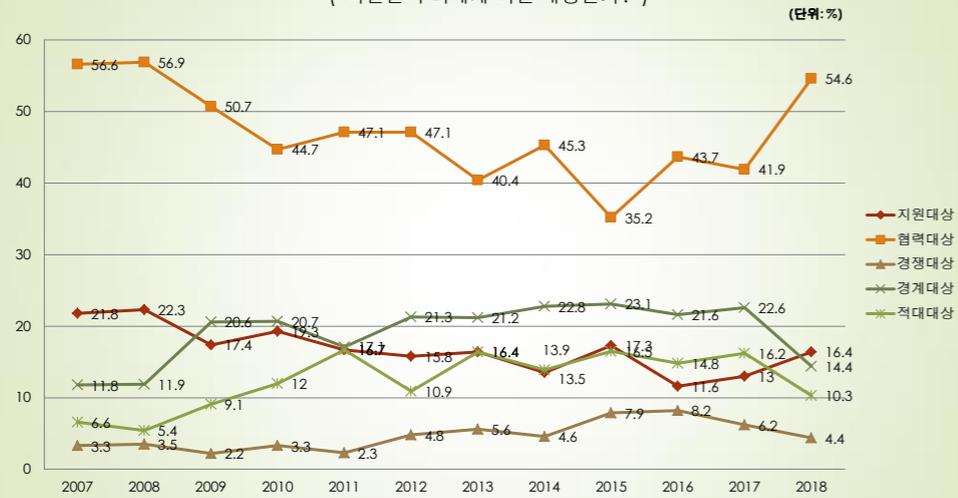
VI.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1.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
2.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VII. 결론

I. 북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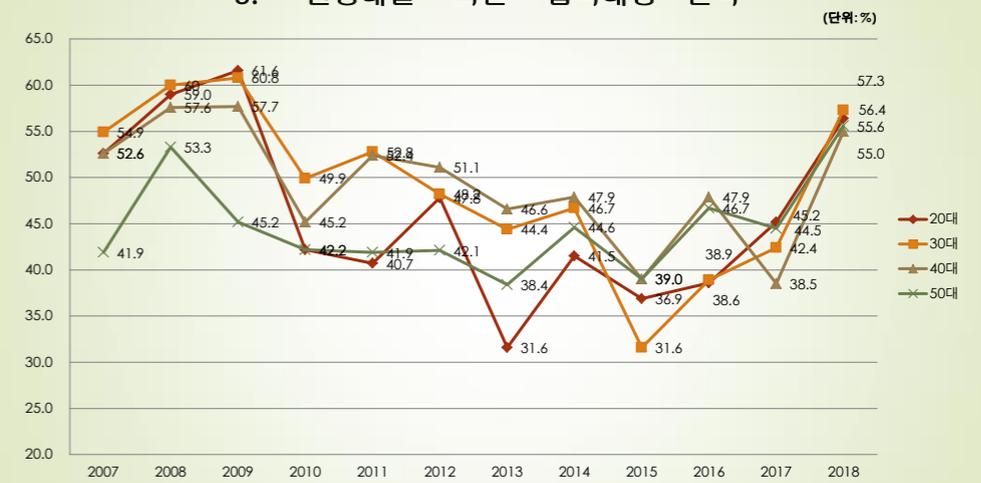
1.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 북한을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대폭 상승하였음.
- 협력대상이라는 의견은 9년 만에 50% 이상으로 상승하였음

I. 북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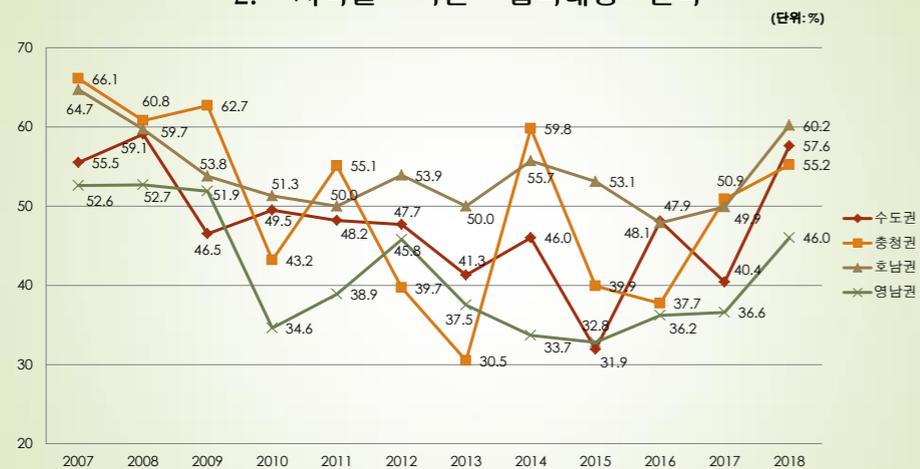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전 연령대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대폭 상승했음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45.2%-56.4%, ‘30대’ 42.4%-57.3%, ‘40대’ 38.5%-55.0%, ‘50대’ 44.5%-55.6%로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그러나 40대가 16.5%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

I. 북한의 존재 인식

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수도권(+17.2%p), 호남권(+10.3%p), 영남권(+9.4%p), 충청권(+4.3%p) 등의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I. 북한의 존재 인식

3-1.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17.4% -> 10.3%(-7.1%p), ‘30대’ 16.2% -> 10.3%(-5.9%p), ‘40대’ 16.8% -> 9.1%(-7.7%p), ‘50대’ 14.2% -> 10.7%(-3.5%p)로 ‘40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음’.
- 하락폭은 20대가 가장 크고(-7.1%p), 50대가 가장 작음(-3.5%p).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단위: %)



- 2018년 남한 주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래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섬

II.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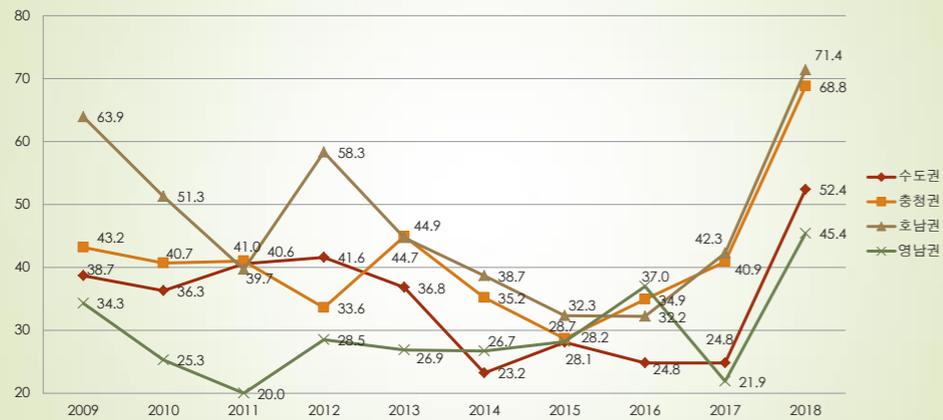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이래로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낮은 수준(20%~30%대)을 유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18년 들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진보 60.9%, 중도 55.7%, 보수 40.0%로 대폭 상승하였음.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단위: %)



- 모든 지역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하였음.
 - 영남권의 경우, 2009년 이래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45.4%로 전년 대비 23.5%p 상승했음.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4.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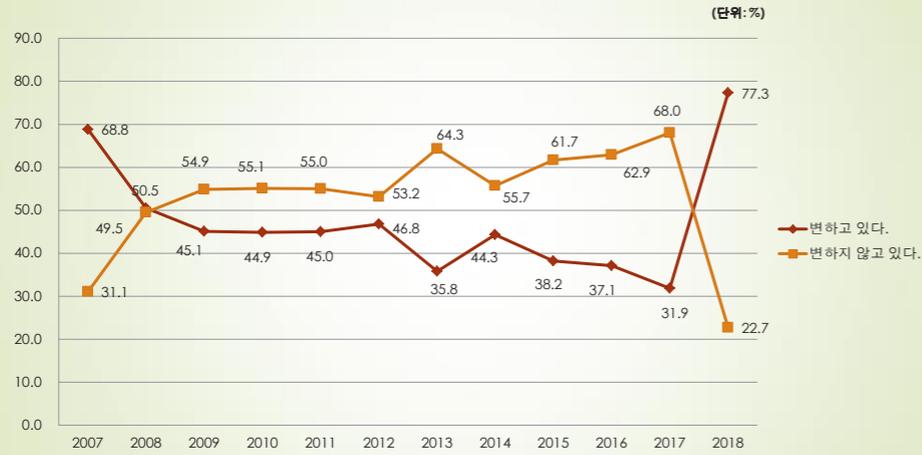
(단위: %)



- '20대' 57.3%, '30대' 52.0%, '40대' 59.8%, '50대' 53.7%로 '4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3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됨.
 - 2017년의 경우도 20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 중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았음

Ⅲ.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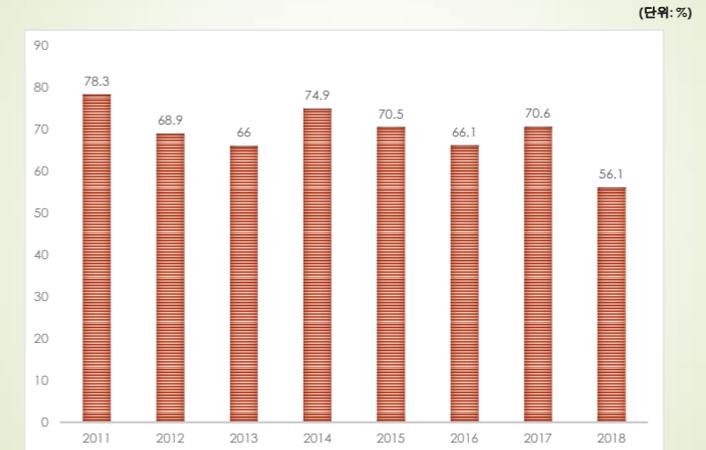
1.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77.3%'로 2017년 31.9%에서 45.4%p 상승했음.
-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2.7%'로 2017년 68.0%에서 45.3%p로 급감했음.

Ⅳ. 북한의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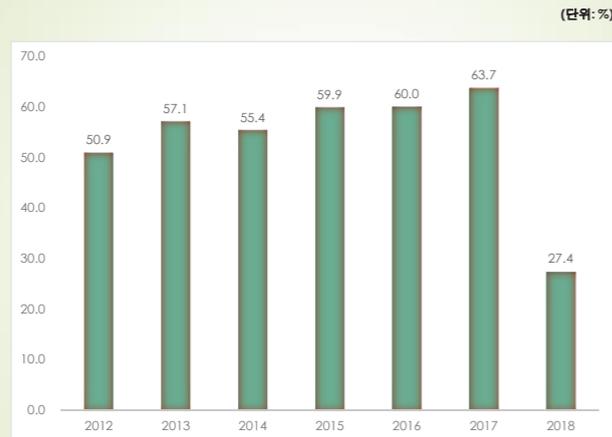
1.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56.1%로 전년대비 14.5%p 하락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50% 이상으로 남한 주민의 대북 위협 인식은 낮지 않은 상황임.

Ⅲ.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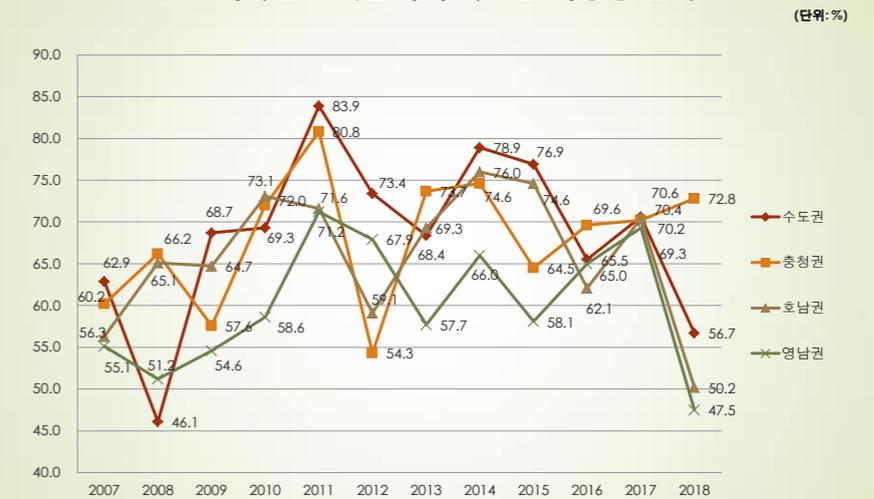
2. 북한정권 불안정 예측



- 향후 북한정권의 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27.4%(전년대비 -36.6%p)'만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고 답변했음.

Ⅳ. 북한의 위협 인식

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수도권 70.6%-56.7%, 호남권 70.4%-50.2%, 영남권 69.3%-47.5%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 인식이 대폭 감소했음.
- 반면, 충청권은 70.2%-72.8%로 오히려 소폭 상승했음.

IV. 북한의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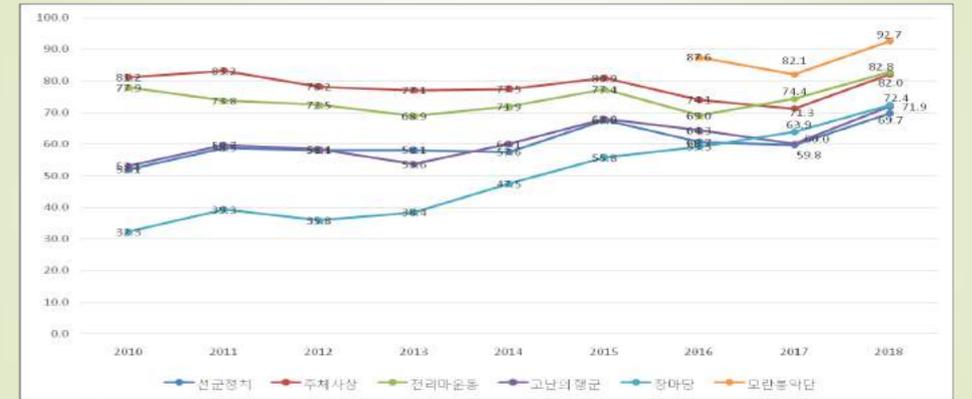
3.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2017년과 비교할 때 전 연령대 모두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 20대 57.6%, 30대 58.8%, 40대 53.1%, 50대 53.4% 임.
- 그러나 전 연령대 모두 50%대 수준으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높은 수준임.

V. 북한 사회 친숙성 및 국가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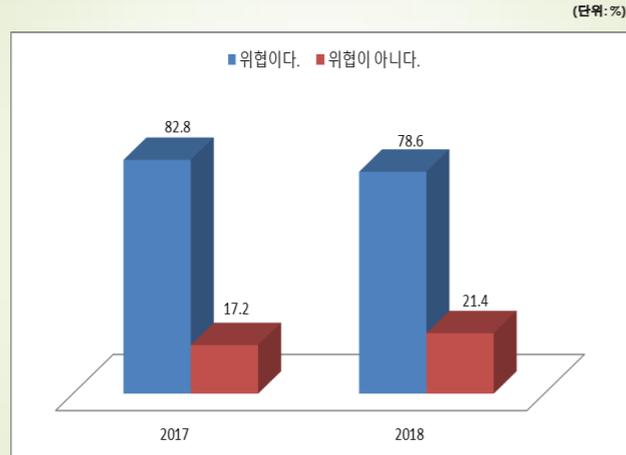
1.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선군정치 69.7%, 주체사상 82.0%, 천리마운동 82.8%, 고난의 행군 71.9%, 장마당 72.4%, 모란봉악단 92.7%로 남한 주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때문이라고 보임.
-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2016년과 2017년에도 5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남한 주민의 북한사회 인지도는 높은 수준임.

IV. 북한의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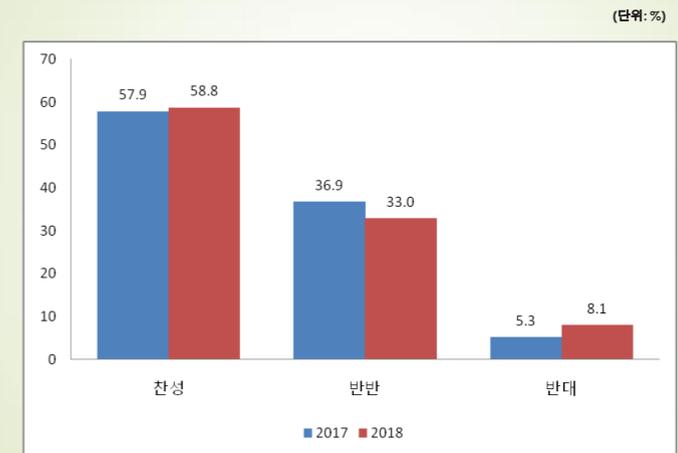
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78.6%로 전년대비 4.2%p 낮아졌음.
-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21.4%에 그치고, '위협이다'는 의견이 7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V. 북한 사회 친숙성 및 국가성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 58.8%로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은 2017년(57.9%)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5.3%에서 8.1%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폭 증대되었음.

VI.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1.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



-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82.3%가 심각하다고 응답함

VII. 결론

- 2018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41.9%에서 54.6%로 상승하였음.
- 20대 56.4%(+11.2%p), 30대 57.3%(+14.9%p), 40대 55.0%(+16.5%p), 50대 55.6%(+11.1%p)로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북한정권 신뢰도' 질문에서 54.7%가 '북한정권을 신뢰한다'고 응답했음.
-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7.3%(+45.4%p)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56.1%로 전년대비 14.5%p 하락했음.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78.6%로 전년대비 4.2%p 낮아졌음.
-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58.8%로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2017년과 같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82.3%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법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46.2%)'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음.

VI.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2.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 중 '남북 간 대화와 교류(46.2%)'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음.
- 반면, '대북 제재(10.5%)'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음.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

문인철 (서울연구원)

1. 북한의 존재인식

가. 한국인의 대북 인식

1)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이 대폭 상승하였음.

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2017년 16.2%에서 2018년 10.3%로 하락했음.

나) 마찬가지로,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2017년 22.6%에서 14.4%로 하락했음.

다)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2017년 41.9%에서 2018년 54.6%로 대폭 상승했음.

라)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2017년 13.0%에서 16.4%로 소폭 상승했음.

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남북(4.27, 5.26) 및 북미정상 회담(6.12) 개최,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 발전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나.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1)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순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대폭 상승했음.

가) 전년대비 수도권 40.4% → 57.6%(+17.2%p), 충청권 50.9% → 55.2%(+4.3%p), 호남권 49.9% → 60.2%(+10.3%p), 영남권 36.6% → 46.0%(+9.4%p) 등으로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이 상승했음.

나) 이중 수도권이 17.2%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권이 4.3%p로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했음.

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모두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라)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2007년 55.5%에서 2015년 31.9%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2018년 현재 57.6%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1) 전 연령대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이 대폭 상승했음

가) 20대 45.2% → 56.4%(+11.2%p), 30대 42.4% → 57.3%(+14.9%p), 40대 38.5% → 55.0%(+16.5%p), 50대 44.5% → 55.6%(+11.1%p)로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나) 그러나 40대가 16.5%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

다) 특기할 점은 2015년 이래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20대와 30대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임

라) 20대의 경우, 36.9% → 38.6% → 45.2% → 56.4%로 2015년 기준 19.5%p 상승했음

마) 30대의 경우, 31.6% → 38.9% → 42.4% → 57.3%로 2015년 기준 25.7%p 상승했음

바) 40대를 제외하고 2016년 이래로 20대, 30대, 50대 모두 상승 추세에 있음.

사)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10.3%, 30대 10.3%, 40대 9.1%, 50대 10.7%로 40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아) 하락폭은 20대가 전년대비 -7.1%p, 50대가 -3.5%p 하락했음.

2.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가.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1)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음.

- 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정권 신뢰도 질문에서 54.7%가 ‘신뢰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 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편차는 있었으나 평균 33%대로 낮은 수준이었음.
- 다) 반면,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평균 67%대(2009년~2017년)였음
- 라) 그러나 2018년 북한정권 불신 인식은 45.3%(전년대비 -26.6%p)로 낮게 조사되었음.
- 마) 2018년 처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불신을 넘어섰음.
- 바) 2018년 들어 실제로 남북한 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임.

나.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1)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음.

- 가) 수도권의 경우 24.8%에서 52.4%로 전년대비 27.6%p 상승했음.
- 나) 충청권의 경우 40.9%에서 68.8%로 전년대비 27.9%p 상승했음.
- 다) 호남권의 경우 42.4%에서 71.4%로 전년대비 29.0%p 상승했음.
- 라) 영남권의 경우 2009년이래로 2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45.4%로 전년대비 23.5%p 상승했음.
- 마) 수도권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남권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부터 다시 영남권을 넘어섰음.
 - 수도권(2013~2017): 36.8% - 23.2% - 28.1% - 24.8% - 24.8%
 - 영남권(2013~2017): 26.9% - 26.7% - 28.2% - 37.0% - 21.9%

다.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 1)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정권 신뢰도가 전년대비 모두 대폭 상승했음.
 - 가) 진보적 정치성향의 경우 2014년이래로 30%대를 이어오다가 2018년 60.0%로 24.1%p 상승했음.
 - 나) 중도의 경우도 2014년 이래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55.7%로 전년대비 31.3%p 상승했음.
 - 다) 보수적 정치성향은 2012년(32.1%)을 제외하고 2009년 이래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40.0%로 전년대비 18.1%p 상승했음.
 - 라) 그러나 여전히 보수의 북한정권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 북한 주민의 인권, 독재체제 유지 등의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오랜 적대관계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라.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1) 전 연령대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음.

- 가) 20대의 경우, 26.2%에서 57.3%로 전년대비 31.1%p 상승했음.
- 나) 30대의 경우, 30.4%에서 52.0%로 전년대비 21.6%p 상승했음.
- 다) 40대의 경우, 29.0%에서 59.8%로 전년대비 30.8%p 상승했음.
- 라) 50대의 경우, 28.1%에서 53.7%로 전년대비 25.6%p 상승했음.
- 마) 2017년의 경우 30대 > 40대 > 50대 > 20대로 순으로 조사되었음.
- 바) 그러나 2018년의 경우에는 40대 > 20대 > 50대 > 30대 순으로 2017년에 가장 높았던 30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사) 이는 북한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3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됨.
- 아) 2017년의 경우도 ‘20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 중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자) 20~30대의 경우 북한(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3.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가.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 1) “당신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7.3%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음.
 - 가)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22.7%로 낮게 조사되었음.
 - 나)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31.9%에서 2018년 77.3%로 45.4%p 상승했음.
 - 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68.0%에서 2018년 22.7%로 45.3%p 하락했음.
 - 라) 조사에 따르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마)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부분이 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확인되지 않음.
 - 바) 다만, 최근 평양의 도시 발전상이라던가, 평양주민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패션,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 등 10년 전과 달라진 여러 모습들 때문이라고 보임.
 - 사) 또한 은둔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김정일 위원장과 대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대외 행보나 경제 발전(협력) 및 비핵화 의지 피력, 남북한 대화 시 나타나는 북한 지도부의 유화적 모습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나. 북한정권 불안정 예측

- 1) “현재의 북한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와 ‘비동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7.4%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
 - 가) 다시 말해,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2017년 64.7%에서 27.4%로 37.3%p 대폭 감소했음
 - 나) 정권 초기 대규모 숙청이나 주민 통제 강화의 모습, 핵개발 등 군사력 증

강보다 경제 발전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 다) 또한 북한 최고 지도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시 판문점 남측 방문과 당시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 있는 발언들, 마찬가지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싱가포르 방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4. 북한의 위협 인식

가.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8년 56.1%로 전년 대비 14.5%p 하락했음.
 - 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5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한주민의 대북 위협 인식은 낮지 않은 상황임.
 - 나)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이 50%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한 교류협력,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다) 무엇보다 지난 70여 년 간 지속된 남북한 군사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나.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위협 인식은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했음.
 - 가) 수도권의 경우, 2017년 70.6%에서 2018년 56.7%로 ‘13.9%p’ 하락했음.
 - 나) 호남권의 경우, 2017년 70.4%에서 2018년 50.2%로 ‘20.2%p’ 하락했음.
 - 다) 영남권의 경우, 2017년 69.3%에서 2018년 47.2%로 ‘22.1%p’ 하락했음.
 - 라) 반면, 충청권의 경우 2017년 70.2%에서 2018년 72.8%로 ‘2.6%p’ 상승했음.
 - 2016년에도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상승했음.

다.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2017년과 비교할 때 전 연령대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 가) 20대의 경우, 2017년 77.9%에서 2018년 57.6%로 '20.3%p' 하락했음.
 - 나) 30대의 경우, 2017년 72.7%에서 2018년 58.8%로 '13.9%p' 하락했음.
 - 다) 40대의 경우, 2017년 71.3%에서 2018년 53.1%로 '-8.2%p' 하락했음.
 - 라) 50대의 경우, 2017년 66.3%에서 2018년 53.3%로 '13.0%p' 하락했음.
 - 마) 그러나 전 연령대 모두 50%대 수준으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높은 수준임.

라.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 1)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8년 78.6%로 전년대비 4.2%p 낮아졌음.
 - 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 그러나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21.4%에 그치고, '위협이다'는 의견이 70% 후반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마. 북한 사회 친숙성 및 국가성에 대한 인식

1) 북한 사회 인지도

- 가)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음.
 - 선군정치 59.8% → 69.7%, 주체사상 71.3% → 82.0%, 천리마운동 74.4% → 82.8%, 고난의 행군 60.0% → 71.9%, 장마당 63.9% → 72.4%, 모란봉악단 82.1 → 92.7%로 남한주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8년 들어와 남북관계가 급진전 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2016년과 2017년에도 5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남한주민의 북한사회 인지도는 높은 수준임.

2)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 가) 58.8%로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2017년 5.3%에서 2018년 8.1%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폭 증대되었음.
 - 이는 통일의 대상으로서 국가적 차원보다 민족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6.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

- 1) 2018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음.
 - 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35.5%'가 '매우 심각하다', '46.8%'가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함으로써 '82.3%'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나) 반면, '2.1%'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0.2%'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2.4%'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4%'였음.
 - 라)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대북 사안별 시급성 조사에서도 남한 주민들의 '83.5%(매우 시급 35.2% + 다소 시급 48.3%)'가 통일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응답했음.
 - 2017년 조사에서는 86.3%(매우 시급 54.5% + 다소 시급 31.8%)가 통일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 마) 그러한 점에서 남한주민의 '61.3%(매우 찬성 17.0% + 다소 찬성 44.3%)'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찬성'했음.
- 가) 찬성에 대한 2017년 응답은 57.0%였음.
- 나) 반대에 대한 2017년 응답은 12.2%로, 2018년 5.5%로 6.7%p 하락했음.

나.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 1) 2018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가) 13.9%가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나) 46.2%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 10.5%가 '대북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라) 29.4%가 '북한의 민주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 2)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슷하게 44.7%(매우 긍정 .5% + 약간 긍정 36.1%)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음.
 - 가)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43.8%,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였음.

7. 결론

- 1) 2018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41.9%에서 54.6%로 '12.7%p' 상승하였음.
 - 가)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16.2%에서 10.3%로 '5.9%p' 하락하였음.
- 2) 호남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순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대폭 상승했음.

- 가) 전년대비 수도권 40.4% → 57.6%(+17.2%p), 충청권 50.9% → 55.2%(+4.3%p), 호남권 49.9% → 60.2%(+10.3%p), 영남권 36.6% → 46.0%(+9.4%p) 등으로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이 상승했음.

3) 전 연령대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이 대폭 상승했음.

- 가) 20대 56.4%(+11.2%p), 30대 57.3%(+14.9%p), 40대 55.0%(+16.5%p), 50대 55.6%(+11.1%p)로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나) 2015년 이래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20대와 30대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임.

4)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음.

- 가) '북한정권 신뢰도' 질문에서 54.7%가 '북한정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 나) 한편,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45.3%(전년대비 -26.6%p)로 낮게 조사되었음.

5)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음.

- 가) 수도권 52.4%(+27.6%p), 충청권 68.8%(+27.9%p), 호남권 71.4%(+29.0%p), 영남권 45.4%(+23.5%p).

6)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정권 신뢰도가 전년대비 모두 대폭 상승했음.

- 가) 진보 60.0%(+24.1%p), 중도 55.7%(+31.3%p), 보수 40.0%(+18.1%p)
- 나) 그러나 여전히 보수의 북한 정권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임.

7) 전 연령대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음.

- 가) 20대 57.3%(+31.1%p), 30대 52.0%(+21.6%p), 40대 59.8%(+30.8%), 50대 53.7%(+25.6%p)

8)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7.3%(+45.4%p)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음.

- 가)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22.7%(-45.3%p)로 낮게 조사되었음.

9)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2017년 64.7%에서 27.4%로 37.3%p 대 폭 감소했음.

10)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8년 56.1%로 전년대비 14.5%p 하락했음.

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5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의 대북 위협 인식은 낮지 않은 상황임.

11)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위협 인식은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충청권의 경우는 소폭 상승했음.

가) 수도권 56.7%(-13.9%p), 호남권 50.2%(-20.2%p), 영남권 47.2%(-22.1%p), 충청권 72.8%(+2.6%p).

12) 2017년과 비교할 때 전 연령대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음.

가) 20대 57.6%(-20.3%p), 30대 58.8%(-13.9%p), 40대 53.1%(-18.2%p), 50대 53.3%(-13.0%p)

13)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8년 78.6%로 전년대비 4.2%p 낮아졌음.

가) 그러나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21.4%에 그치고, '위협이다'는 의견이 70% 후반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14)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가) 선군정치 69.7%, 주체사상 82.0%, 천리마운동 82.8%, 고난의 행군 71.9%, 장마당 72.4%, 모란봉악단 92.7%로 남한 주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5) 58.8%로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가) 그러나 2017년 5.3%에서 2018년 8.1%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폭 증대되었음.

16) 2018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음.

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82.3%'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7)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46.2%)' > '북한의 민주화(29.4%)' > '인도적 대북 지원(13.9%)' > '대북 제재(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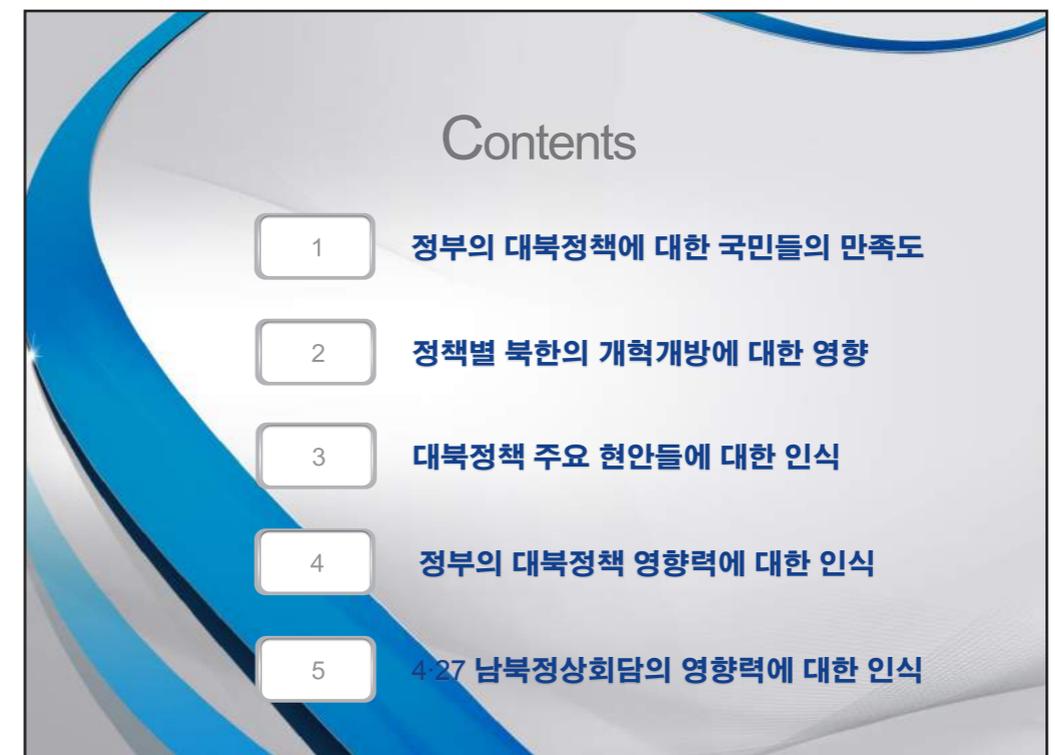
2018 통일민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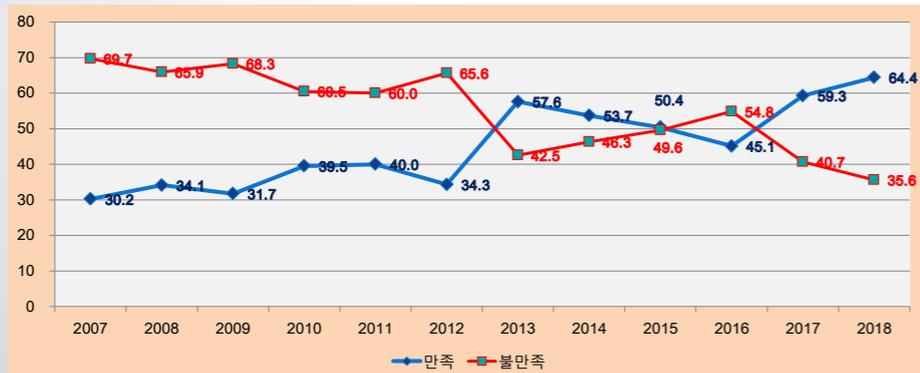
발표 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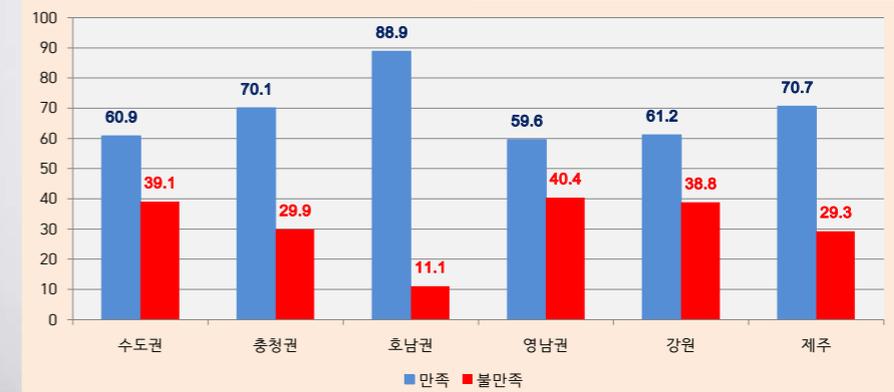
나용우 (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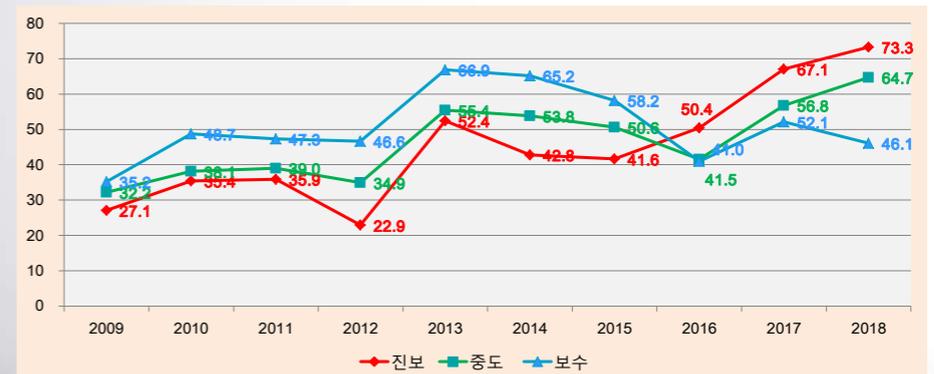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 2013년 이후 하락 추세의 만족도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2년 연속 상승하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
- 한반도 정세 변화가 구체적 성과들(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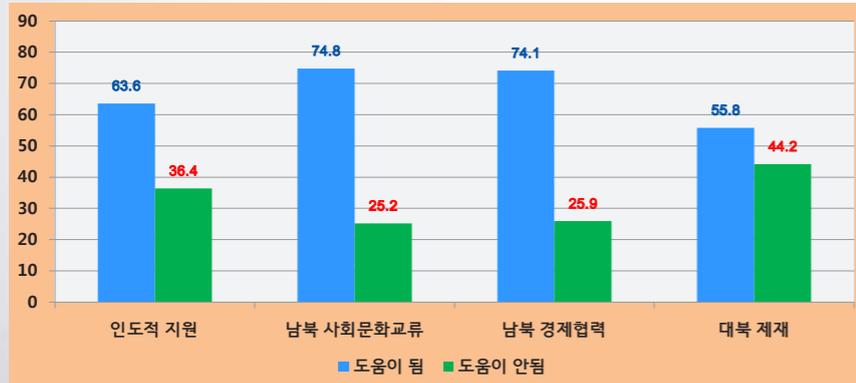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호남권(88.9%), 제주(70.7%), 충청권(70.1%) 순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영남권(40.4%), 수도권(39.1%), 강원(38.8%)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음
- 2017년의 경우 호남권(65.7%), 충청권(61.8%), 수도권(61.5%)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원권(63.0%), 영남권(45.5%), 제주권(44.9%)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았음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를 제외하고 중도와 진보층은 모두 대북정책에 대해 역대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
- 주목할 것은 보수층의 변화, 지난해 보수층 역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남북관계의 빠른 개선에 따른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며 하락한 것으로 추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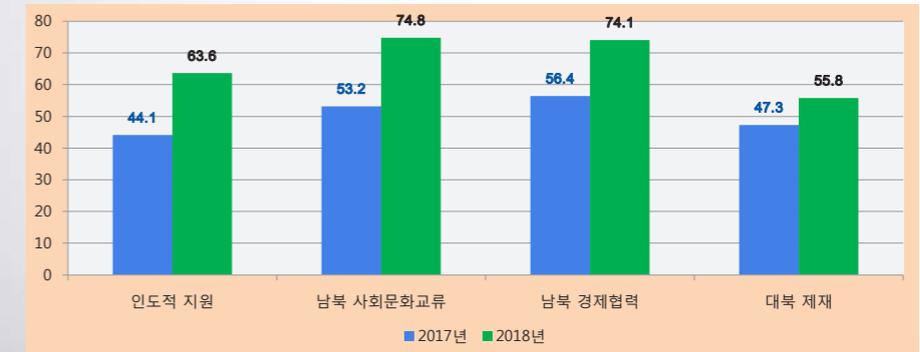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



- ▶ 국민들은 대북제재, 인도적 지원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
- ▶ 특히 인도적 지원이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일방향의 대북지원보다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의 이익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3-1.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 비교(17~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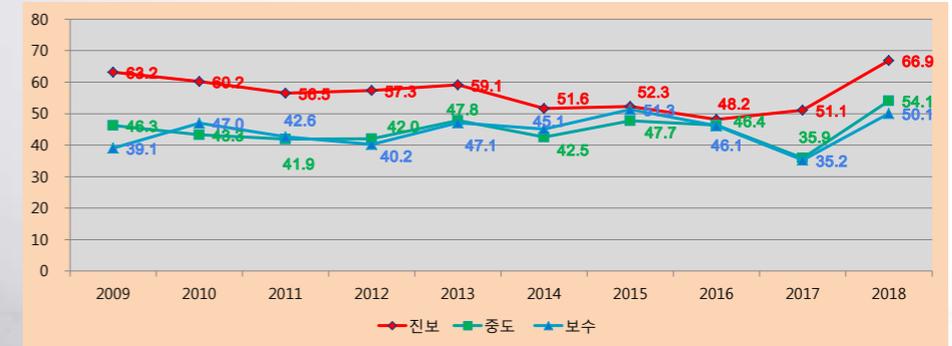


- ▶ 전년대비 모든 정책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 인식 변화로 이해
- ▶ 다만, 대북제재 역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보다 신중한 분석이 요구 (특히, 진보, 중도, 보수 등 모든 정치성향에서 전년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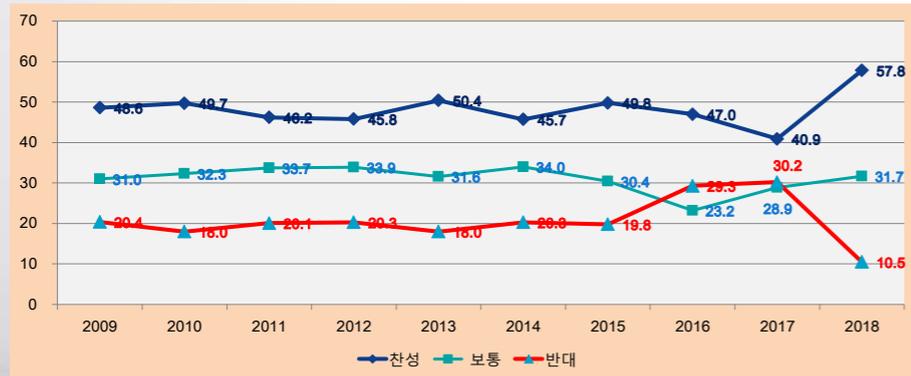
대북정책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2-1-2. 정치성향별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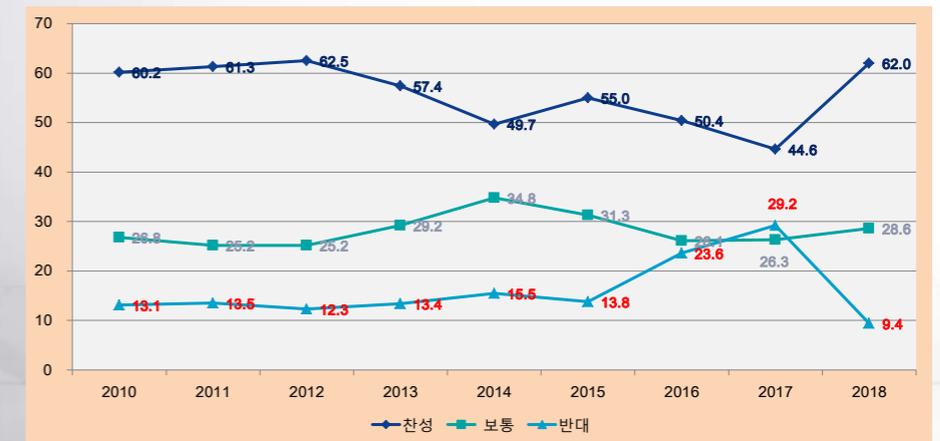
- ▶ 정치성향별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찬성하는 의견은 진보, 중도, 보수 등 모든 층에서 15% 가량 크게 상승
- ▶ 특히 보수성향 응답자의 찬성비율은 15% 가량 증가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으로 면밀한 분석이 요구

2-1-1. 개성공단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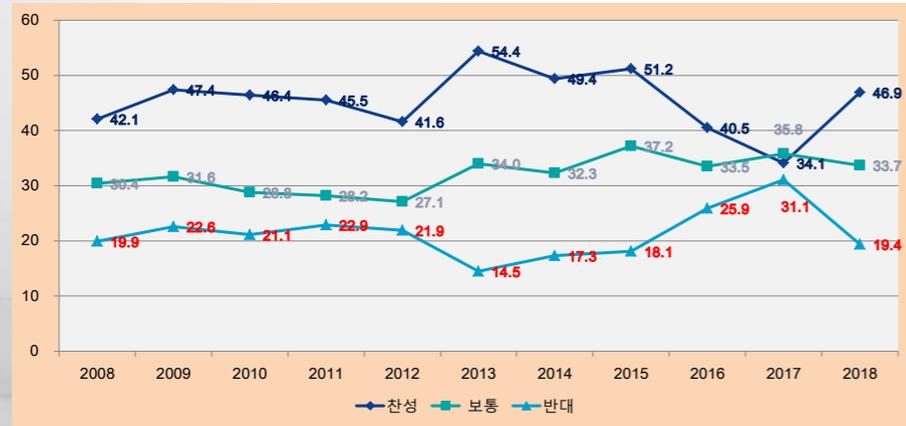


-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은 57.8%로 크게 상승, 반대는 10.5%까지 크게 하락
- ▶ 2017년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은 40%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공세적 대남정책 및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반감이 작동했던 것으로 유추, 그러나 금년도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에 대한 반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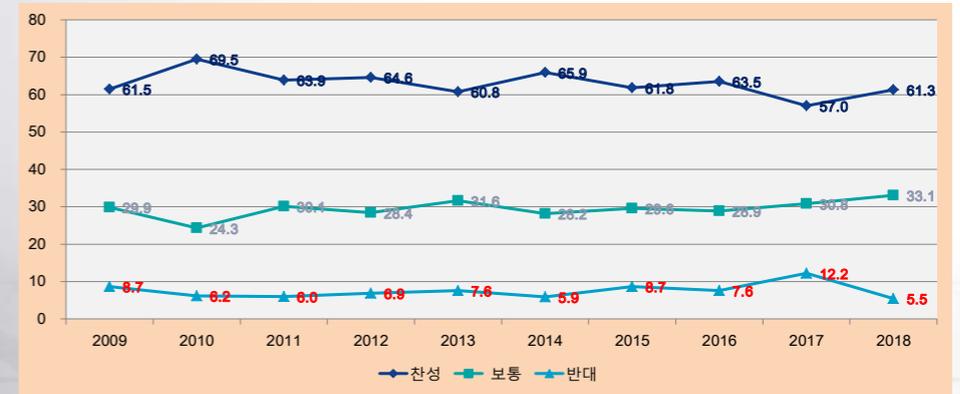
2-2. 금강산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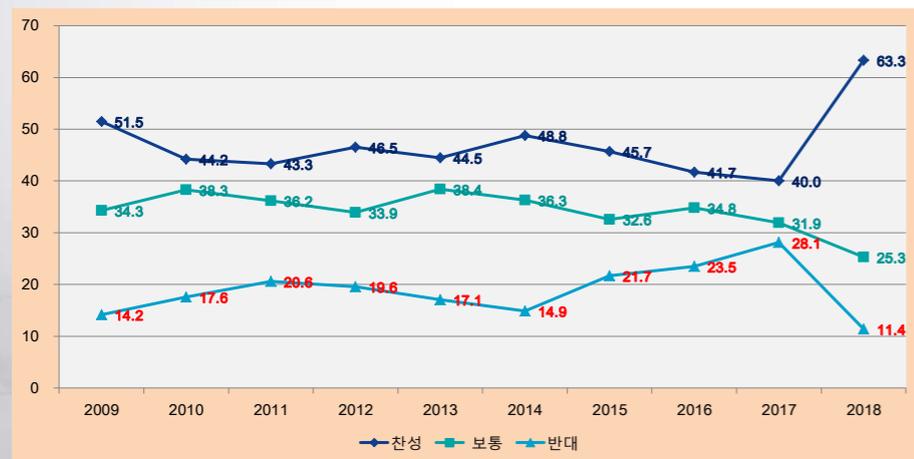
2-3. 북핵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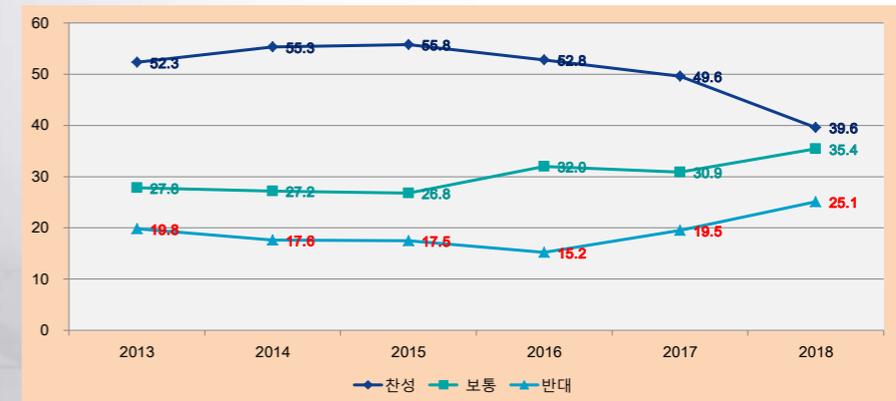
2-5.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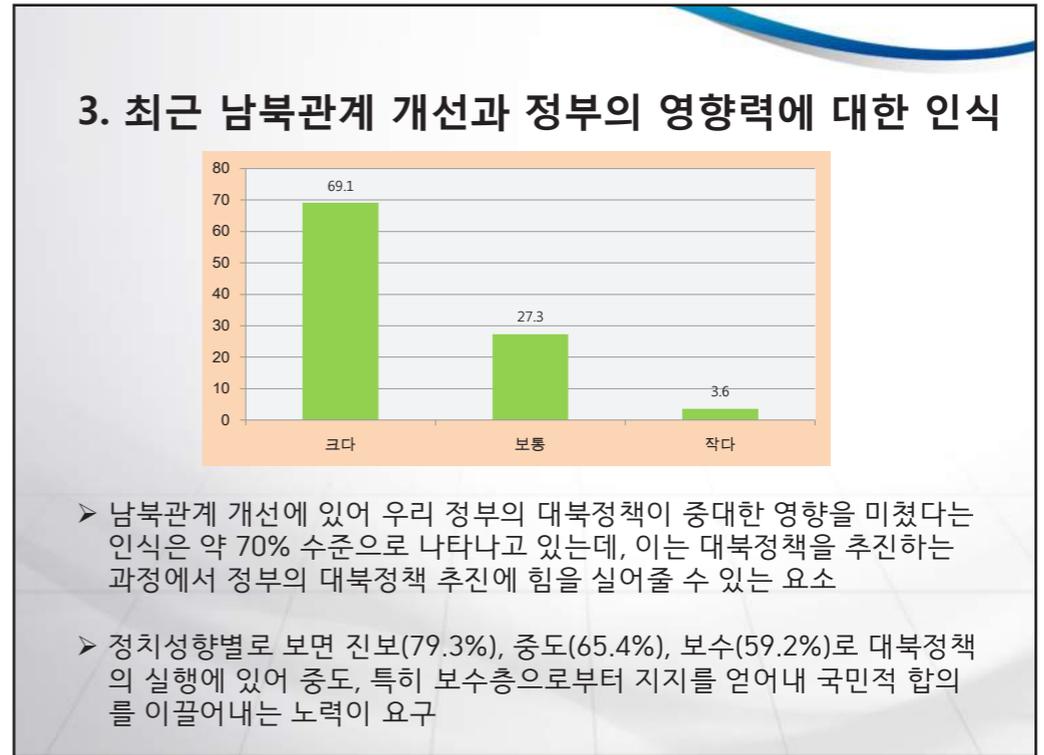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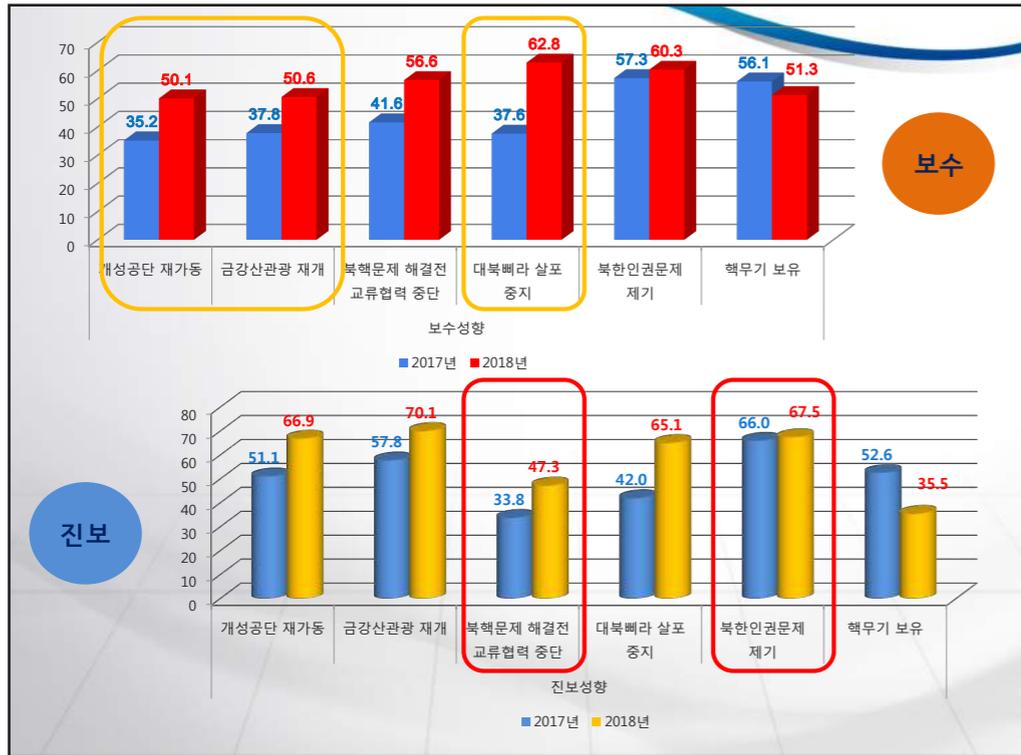


2-4. 대북 배라 살포 중단



2-6. 핵무기 보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에 대한 인식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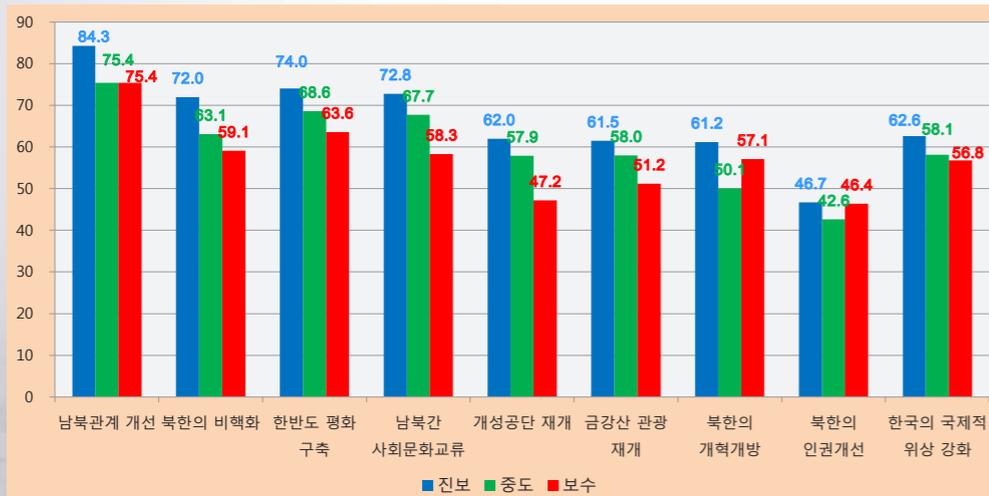
나용우 (통일연구원)

4-1.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 인식



- ▶ 4.27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78.4%)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한반도 평화구축(69.6%), 남북 사회문화교류(67.8%), 북한의 비핵화(65.5%)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반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의 개혁개방 등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응답, 이들 이슈가 남북관계를 넘어서 북미관계에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임을 인식한 결과로 추정

4-2. 정치성향별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 인식



1. 서론

가. 갈등과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는 2018년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대화와 화해의 공간과 시대로 전환되는 엄중한 시점임.

1) 2018년 북한의 신년사 이후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발전노선 전환,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로 2018년 전반기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던 시기

2)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지난 전반기의 속도에 대한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양상

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까지 채택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음.

1)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맞이하면서 운전자 또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만 가능할 수 있을 것임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가. 2013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던 만족도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2년 연속 상승하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64.4%)를 기록

나. 한반도 정세 변화가 구체적인 성과들-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

다. 지역별 만족도: 호남권(88.9%), 제주(70.7%), 충청권(70.1%), 강원권(61.2%), 수도권(60.9%), 영남권(59.6%)

라. 정치성향별 만족도: 진보(73.3%), 중도(64.7%), 보수(46.1%), 중도와 진보는 모두 조사 이래 대북정책에 대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력 인식

가. 국민들은 대북제재, 인도적 지원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

나. 특히 인도적 지원이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같은 일방향의 대북지원보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이익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이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다. 2017년 대비 모든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긍정적 인식 증가

라. 다만 대북제재 역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증가(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전년 대비 상승)

마. 금년 조사에서 주목할 사항은 전통적으로 보수-진보를 양분하는 이슈들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남북관계 개선의 빠른 속도 속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

4.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가.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은 지난해 40.9%에서 57.8%로, 반대의견은 30.2%에서 10.5%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결과, 특히 보수성향의 응답자 역시 35.2%에서 50.1%로 15% 가량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

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남(찬성 44.6%→62.0%, 반대 29.2%→9.4%)

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양상

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전년에 비해 10% 가량 반대의견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이 올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아 안보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

마. 한편,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34.1%→46.9%), 반대(31.1%→18.4%)라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옴

바. 이들 현안들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제, 사회문화 등 교류협력에 대해(북핵문제의 진전 없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보수층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반면, 진보층 역시 북핵문제 해결되기 전 교류협력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14% 정도 늘어나는 등 이념의 구분선이 혼재되는 양상이 특징적

5.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에 대한 인식

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은 69.3%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79.3%), 중도(65.4%), 보수(59.2%)로 보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

6.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가. 4.27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78.4%)

나. 한반도 평화 구축(69.6%), 남북간 사회문화교류(67.8%), 북한의 비핵화(65.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

다. 반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의 개혁개방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인식

라. 특히 앞의 설문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찬성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슈가 남북관계를 넘어서는 북미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발표 5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관계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주변국 친밀감



-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72.5% 가장 높은 친밀도
-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19.1% 작년대비 7.8%p 증가
- 대중친밀감은 3.7%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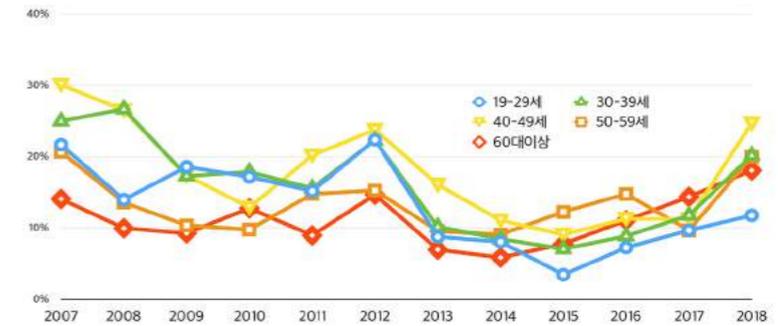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4	3	3
북한	2	2	2	2	2	2	2	3	3	2	2	2
중국	4	4	4	4	4	4	3	2	2	3	4	4
러시아	5	5	5	5	5	5	5	5	5	5	5	5

미국>북한>일본>중국>러시아 순서의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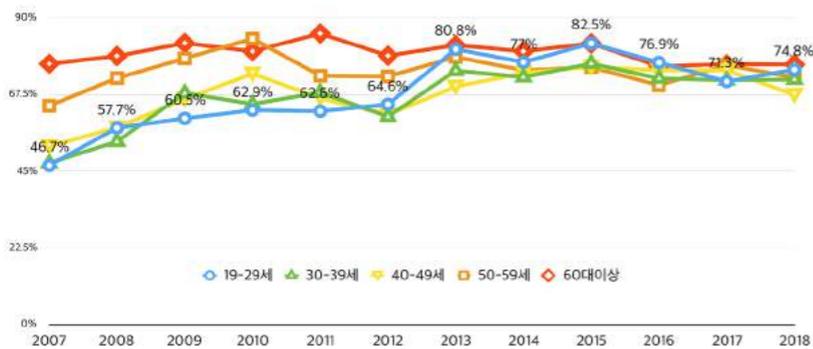
- 미국: 친밀감이 가장 높은 국가
- 중국: 2014-5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선호도, 2017-8년 미국, 북한에 이은 네 번째
- 북한: 2014-5 세 번째 선호도로 떨어짐, 2016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북한



-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친밀감 상승
- 20대 2018년 11.8%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대북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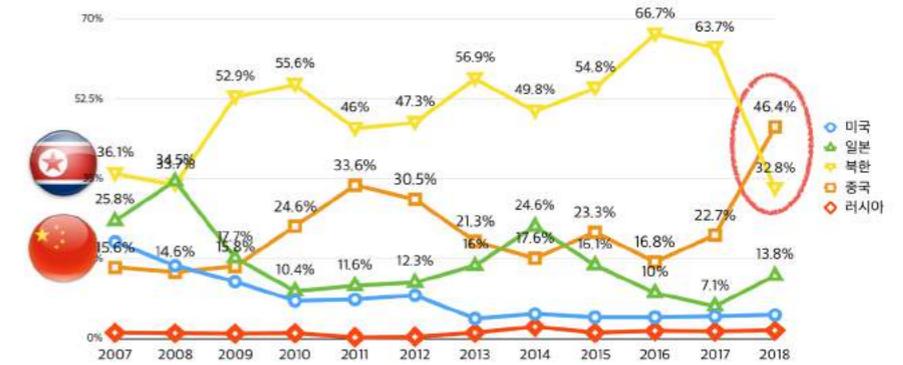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미국



20대 대미친밀감:

- 2007년 46.7%,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but 2018년 74.8%, 60대 다음으로 높음
- 연령대 편차는 점차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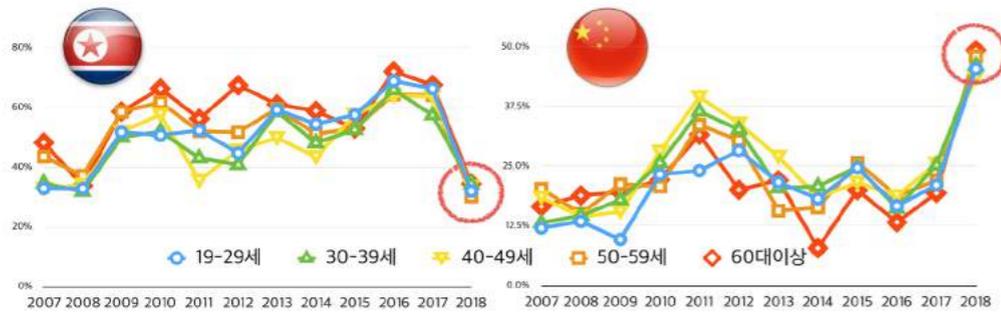
평화위협국가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대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환

- 북한 위협인식 32.8%로 조사 이래 최저 (2008년 33.7%)
- 중국 위협인식 46.4%로 조사 이래 최고

평화위협국가-연령대 북한, 중국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위협인식 하락
2014-6 상승, 2016-8 하락 패턴

대북위협인식의 수렴화: 세대별 대북위협인식
(최저 30.1%~최고 34.4%) 간격 크지 않음

모든 연령대에서 대중위협인식 증가

북한에 비해서도 높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올해 대중위협인식(43.5%~49.2%)의 간격이 크지 않음

대중 인식이 유동적, 유보적 -> 고정적,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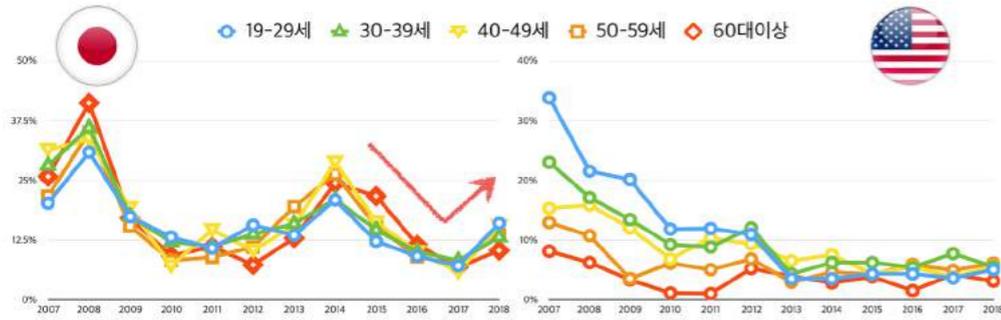
월드컵 경기응원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8년 57.8%로
지난 3년간 하락 패턴에서 반등

'미국팀 응원'은 8.6%로 전년 17.8%에서 감소

평화위협국가-연령대 일본, 미국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3년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일본의 우경화, 헌법개정 노력,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
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단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협 증가,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
서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되는 국가로 본다고 단정
할 수 없음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의 큰 변화는 없음, 낮게 형성됨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수렴

대미인식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 81%

한국의 진보정권에서도 협력대상 이미지는 강화

우방국, 동맹국, 협력자 이미지의 정형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움 것이
다'가 66.1%로 다수

최근 2년간 '자국의 이익을 따름'이 증가

대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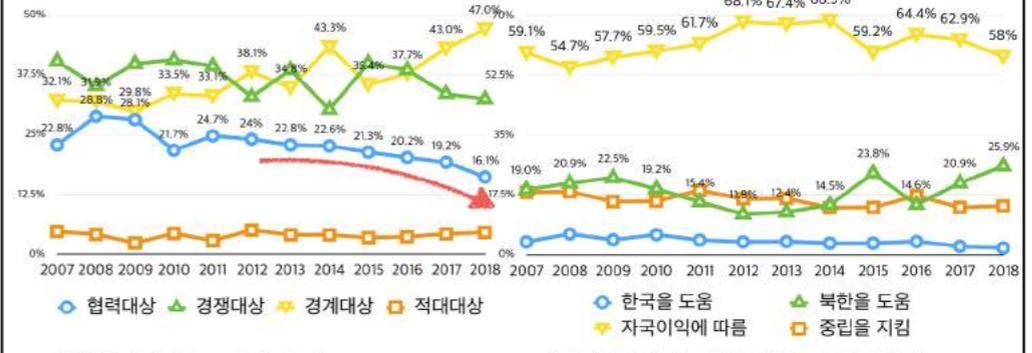
협력대상 13.4%, 경쟁대상 48.5%,
경계대상 31.3%, 적대대상 6.8%

즉 협력대상 보다는 경쟁과 경계 대상으로 인식
문재인 정부 들어 협력대상 감소, 경쟁대상 상승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8년 7.2%로
역대 최저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는 80.9%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대러인식



경계의 이미지(47%)가 우세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래 점진적 하락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 58%로 우세
(일본 다음으로 높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5.9%)
중국 보다 낮음

대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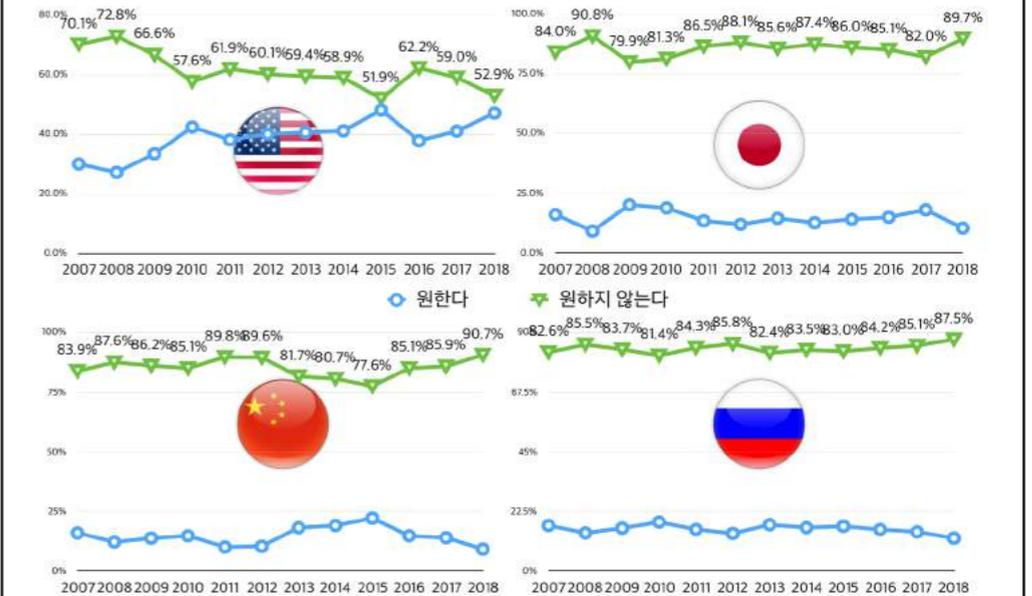
경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50.3%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특정이미지가 절반 초과

과거 협력, 경쟁, 경계 이미지가 복합적
현재 경계대상 이미지가 우세

'북한을 도움'(51.7%)이 주변국 중 가장 높음

즉,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판단

주변국 통일희망



주변국 통일희망

	통일을 원함		통일을 원하지 않음	
	2018	2007-2018	2018	2007-2018
미국	47.1%	38.9%	52.9%	61.1%
일본	10.3%	14.5%	89.7%	85.5%
중국	9.3%	14.7%	90.7%	85.3%
러시아	12.5%	15.9%	87.5%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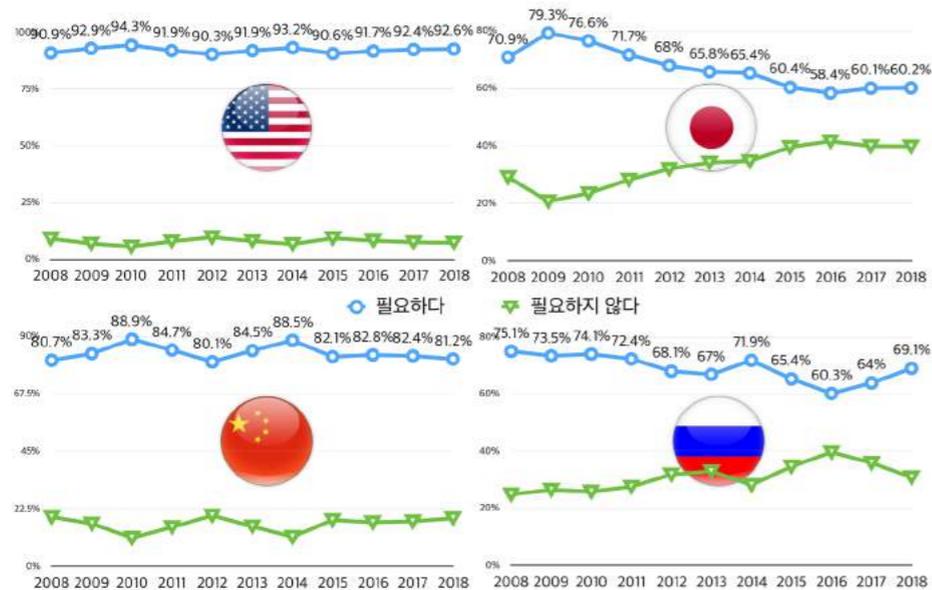
- '통일을 원한다' 2018년 응답률: **미국**>러시아>일본>중국
-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2018년 응답률: **중국**>일본>러시아>미국
-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

통일협조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18	2007-2018	2018	2007-2018
미국	92.6%	92.1%	7.4%	7.9%
일본	60.2%	67.0%	39.8%	33.0%
중국	81.2%	83.6%	18.8%	16.5%
러시아	69.1%	69.2%	30.9%	30.8%

-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 '도움이 필요없다' 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러시아>중국>미국
-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 일본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

통일협조 필요성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2015	2016	2017	2018
남북간 협력	32.8%	34.9%	36.0%	35.3%
한미간 협력	24.6%	26.1%	31.4%	23.4%
한중간 협력	6.6%	7.0%	5.6%	3.8%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7.4%
합계	100.0%	100.0%	100.0%	100.0%

- 통일을 위해 '남북, 한미, 한중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7.4%로 가장 높음
- '남북 간 협력' 35.3% > '한미 간 협력' 23.4% > '한중 간 협력' 3.8%
- '모두 중요'(37.4%) VS '남북' '한중', '한미' 협력'(all 62.5%)
- :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2018
한미 간 협력	39.3%
한중 간 협력	8.6%
모두 강화해야 한다	52.2%
	100.0%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음

'한미 간 협력' 39.3% > '한중 간 협력' 8.6%

'한미', '한중' 간 협력 이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
: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가 우세

중국 부상과 미중갈등 시 한국입장

		미중 갈등 시			합계
		미국과 협력강화	중국과 협력 강화	중립을 지켜야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됨	34.2%	11.0%	54.8%	100.0%
	보통	36.4%	8.5%	55.1%	100.0%
	도움이 안됨	40.5%	5.0%	54.5%	100.0%
	도움이 됨	93	30	149	272
	보통	125	29	189	343
	도움이 안됨	237	29	319	585
	합계(N)	455	88	657	1200

$\chi^2 = 19.299$ P<0.05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중국의 우상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 모두 미중 갈등시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미중 갈등 시 한국입장

	2018
도움이 됨	22.0%
보통	28.5%
도움이 안됨	49.5%
	100%

응답자의 약 절반(49.5%)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 20대(53.1%), 고학력(51.6%), 고소득(51.9%), 대도시 지역(51.9%), 진보 성향(52.2%) 우세

	2018
미국과 협력 강화	39.2%
중국과 협력 강화	7.6%
중립을 지켜야	53.2%
	100%

응답자의 절반(53.2%)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소결

- 굳건한 대미친밀감
- 친밀감 소폭 하락, but 높은 수준 호감도, 협력대상 인식 절대적
-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
- 최대위협감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첫 전환, 중국위협인식 2년만에 2.8배, 남북관계 진전 영향
- 연령대 간 대미친밀감, 대북, 대중 위협인식의 차이가 크게 좁혀짐
- 20대 대미친밀감 지속적 상승, 대북, 대중 위협인식은 세대 간 수렴
- 대중이미지 & 중국의 부상: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
- 지금까지 유동적, 복합적 인식에서 특정 인식, 즉 경계대상 인식이 우세하기 시작
- 대중친밀감 역대 최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
- 미중 사이에서 균형의식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협력 중요, but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를 중시해야 함
- 미중 갈등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함
- 주변국 통일환경 부정적
- 주변국 통일 원하지 않지만 주변 4개국 협조 반드시 필요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요약)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주변국 친밀감

가. 우리 국민들은 주변국 가운데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북한을 두 번째로 가깝게 인식함

- 1) 문재인 정부(2017.5)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70% 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보임

나. 주목할 점은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올해 19.1%로 작년대비 7.8% 증가(최근 3년간 증가)한 반면 중국의 친밀감은 2018년 3.7%로 역대 최저(최근 2년간 하락)

다. 우리 국민의 대중친밀감이 3.7%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로 나타난 것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 1) 2014-2015년 동안 한국인의 대중친밀감이 대북친밀감 보다 앞섰으나, 2017년, 2018년의 경우 한국인의 대중친밀감은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낮아짐

- 2)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2015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며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중 관계는 최고조에 도달하였음

- 3) 올해 대중친밀감 하락은 북한에 대한 친밀감 상승으로 인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인의 대중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됨

- 4) 또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상승한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라. 주변국 친밀감을 국가별 선호도로 관찰했을 때 우리 국민은 중국보다 일본을 더 가깝게 인식

마. 연령대로 보았을 때,

- 1) 20대 대미친밀감이 74.8%로 60대(76.3%)다음으로 높음

가) 연령대 대미친밀감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한국인들의 대미친밀감이 세대적 특징을 점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친밀감이 상승, 특히 40대, 50대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가) 단 20대의 대북친밀감은 11.8%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음, 2015년부터 동일한 패턴 지속 됨

2. 위협국가 인식

가. 10년 만에 우리 국민이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대가 북한(32.8%)에서 중국(47.4%)으로 전환

1) 작년대비 대북위협인식은 63.7%에서 32.8%로 30.9%p 하락, 대중위협인식은 22.7%에서 46.4%로 23.7%p 증가

2) 북한위협인식 32.8% 조사 이래 최저 (최고 2016년 66.7%,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대북위협인식이 가장 낮았던 2008년(33.7%)과 유사)

3) 중국위협인식 46.4% 조사 이래 최고 (최저 2008년 14.6%, 2016년 16.8%, 2년만에 약 2.8배 증가)

4) 북한 핵실험이 있는 해에는 위협인식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그렇지 않음

가) 2009년(2차 핵실험, 2009.5.25), 2013년(3차 핵실험, 2013.2.12), 2016년(4차 핵실험, 2016.1.6, 5차 핵실험, 2016.9.9)에는 대북위협인식이 증가하였지만 2018년(6차 핵실험 2017.9.3.)에는 오히려 대북위협인식이 감소

나)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 발사, 11월 29일 화성-15 시험 발사 후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11.29.)함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하면서 안보위기는 전례 없이 고조됨

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2018.2) 이후 북핵 위기가 대화국면으로 전환, 남북정상회담(4.27, 5.26), 북중정상회담(3.25-28, 5.7-8, 6.19-20), 북미정상회담(6.12)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침

나. 일본 위협인식은 올해 13.8%로 지난 3년간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

1) 역사문제에서의 양국 간 인식 차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 아베 내각의 우익성향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반영

2) 2018년 5월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그동안 써오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또한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는 '불법점거'라고 명기하였음

3) 그렇지만 일본은 '평화공존의 대상'이며 북한 위협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근본적인 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위협인식 하락, 대중위협인식 증가

1) 모든 세대별 대북위협인식(최저 30.1%~최고 34.4%) 및 대중위협인식(43.5%~49.2%)의 간극이 크지 않음

2)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중국의 대한 인식이 유보적이며 유동적이었다면 최근 2년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고정적,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줌

3)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의 큰 변화는 없음,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됨, 연령대별 대미위협인식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수렴

3. 월드컵 응원

가. 북한에 대한 우호적, 긍정적 태도가 일부 반영

1)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8년 57.8%로 지난 3년간 하락 패턴에서 상승으로 바뀜

2) '미국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은 8.6%로 전년 17.8%에서 감소

4. 주변국 이미지

가.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는 81%로 우방국, 동맹국, 협력자 이미지는 견고함

- 1) 진보성향 정권에서도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는 강화됨
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2)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가 66.1%로 다수이나 최근 2년간 '자국의 이익을 따름'이 증가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
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1) 이후 '미국 우선 America First' 노선은 대외정책과 보호무역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한미동맹 조정의사 표현(한미 훈련 중단 발언_2008.6.12), 한미 FTA 재협상(2018.3)으로 한국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일본에 대해서는 협력대상 이미지 감소, 경쟁대상 이미지 상승

- 1) 2018년 협력대상 13.4%, 경쟁대상 48.5%, 경계대상 31.3%, 적대대상 6.8%, 즉 협력대상보다는 경쟁과 경계대상으로 일본을 인식함
- 2)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8년 7.2%로 역대 최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80.9%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다. 대중이미지는 변화 감지, 한중관계에서 '한국인은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

- 1) 협력대상 13.3%, 경쟁대상 28.4%, 경계대상 50.3%, 적대대상 8.1%, 즉 중국을 협력대상 보다는 경계대상으로 간주

- 가) 협력대상 혹은 경쟁대상 인식은 2년간 하락 반면 경계대상, 적대대상 인식은 2년간 상승
- 나) 2017년에 중국이 협력대상 26.6%, 경쟁대상 31.6%, 경계대상 38.4%로 어느 한쪽으로 정형화 되지 않았다면, 2018년은 경계대상 인식이 우세

- 2)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경계대상이라고 대답
가) 2018 경계대상 이미지가 50.3%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특정 이미지가 절반을 초과
나) 연령대 간격이 크지 않음(최저 48.8% 최고 51.5%)
- 3) 협력대상 이미지 감소 및 경계대상 상승의 직접 요인은 사드 갈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보복의 여파로 볼 수 있음 간접적, 거시적 요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갈등 구도, 동아시아 영토분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공세적 대외정책이 우리 국민의 대중의식에 부정적 요인(두려움 내지 위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4) '북한을 도움'(51.7%)이 주변국 중 가장 높음 즉, 유사시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

라. 대러이미지는 큰 변화 없음

- 1) 경계 이미지가 47%로 우세,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래 점진적으로 하락
- 2)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 58%로 우세 (일본 다음으로 높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25.9%로 중국 보다 낮음
가)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래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
- 3)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돕는다'보다 '북한을 돕는다'라는 응답이 높은 것은 사실. 하지만 중국보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란 응답이 우세한 부분, 또한 '중립을 지킬 것' 응답이 주변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5. 주변국 통일희망

가. 우리 국민들은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1)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절반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나. 주변국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남

6. 주변국 통일협조 필요성

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1) 한반도 통일에 가장 회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 다음으로 협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

나.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며, 일본보다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7.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가. 통일을 위해 '남북, 한미, 한중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7.4%로 가장 높음

1) 지난 2년간의 조사에서는 '남북 간 협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나. '남북 간 협력'이 '한미 간 협력'보다 중요하다는 태도는 사안에 따라 잠재적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

8.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협력

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음

나. '한미 간 협력' 39.3% 이 '한중 간 협력' 8.6% 보다 우세한 것은 맞지만, '한미', '한중' 간 협력이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

1)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가 우세

9. 중국의 부상

가) 응답자의 약 절반(49.5%)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도움이 됨 22.0%, 보통 28.5%)

나)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

- 1) 20대(53.1%), 고학력(51.6%), 고소득(51.9%), 대도시 지역(51.9%), 진보 성향(52.2%) 우세

10. 미중갈등 시 한국의 입장

가. 응답자의 절반(53.2%)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미국과 협력 강화 39.2%, 중국과 협력 강화 7.6%)

나. 중국의 부상 인식과 미중갈등 시 한국 입장을 교차 분석 했을 때,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모두 미중갈등 시 한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11. 소결

가. 굳건한 대미친밀감

- 1) 2018년 대미친밀감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호감도와 협력대상 의식이 절대적임

나.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

- 1) 우리 국민의 최대위협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첫 전환, 중국위협인식 2년 만에 2.8배 상승, 대북위협인식 하락은 남북관계 진전 영향으로 추정

다. 연령대 간 대미친밀감, 대북, 대중 위협인식의 차이가 크게 좁혀짐

- 1) 20대 대미친밀감 지속적 상승함. 한편 대북, 대중 위협감은 세대 간 수렴현상이 보다 뚜렷해짐

라. 대중이미지 & 중국의 부상: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

- 1) 지금까지 유동적, 복합적 인식에서 특정 인식, 즉 경계대상 인식이 우세하기 시작함 또한 대중친밀감 조사 이래 최저로 나타남. 우리 국민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
- 2)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협력이 중요하지만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 미중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발표 6

국민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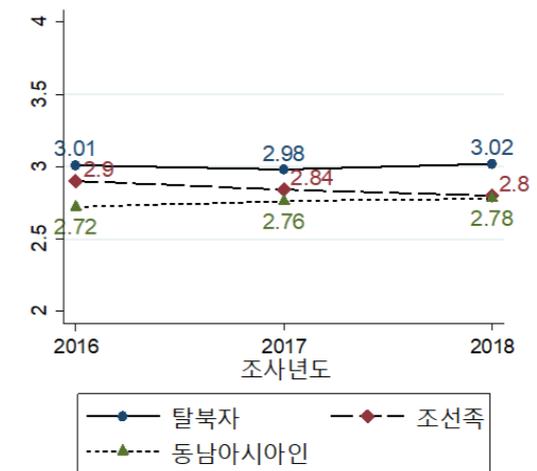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의식조사: 탈북자 인식과 국민정체성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탈북자 및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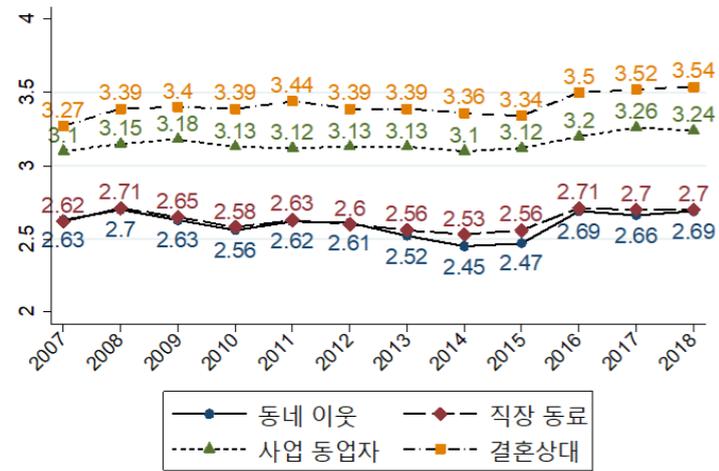
문: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1: 전혀 친근하지 않음 ~ 5: 매우 친근함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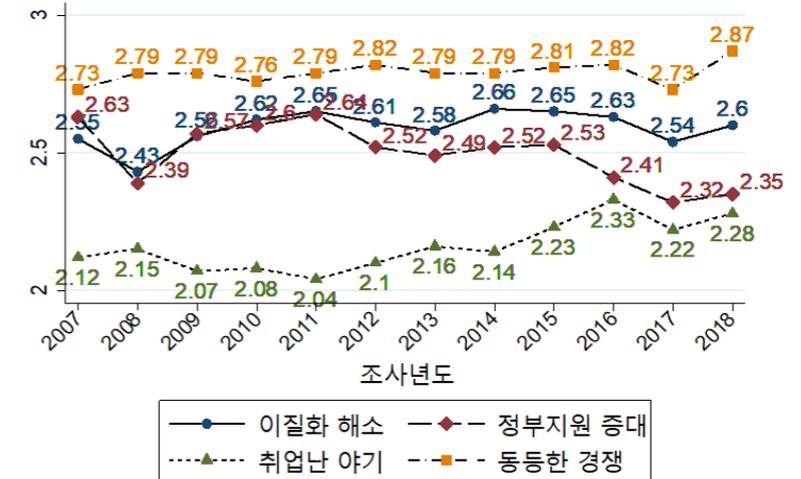
문: "탈북자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1: 전혀 꺼리지 않음~5: 매우 꺼림

탈북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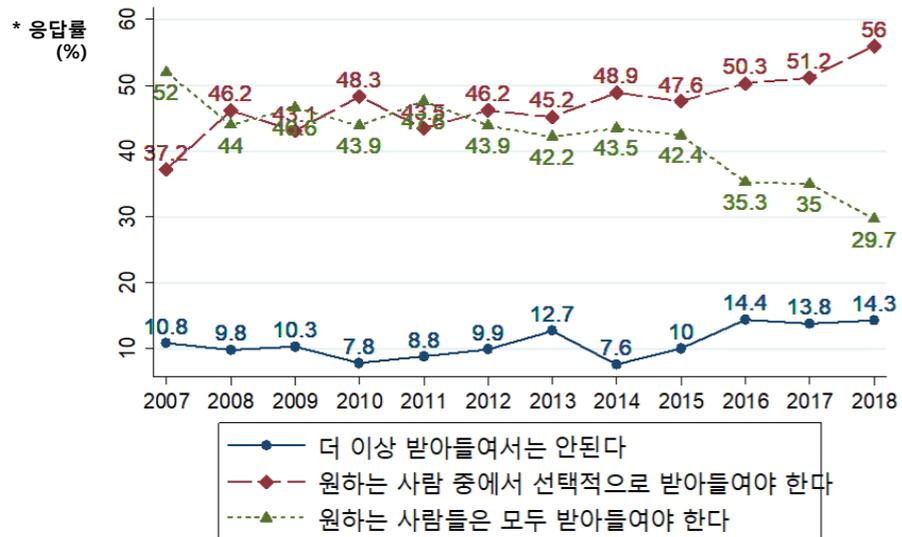
문: "탈북자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 전혀 동의하지 않음~4: 매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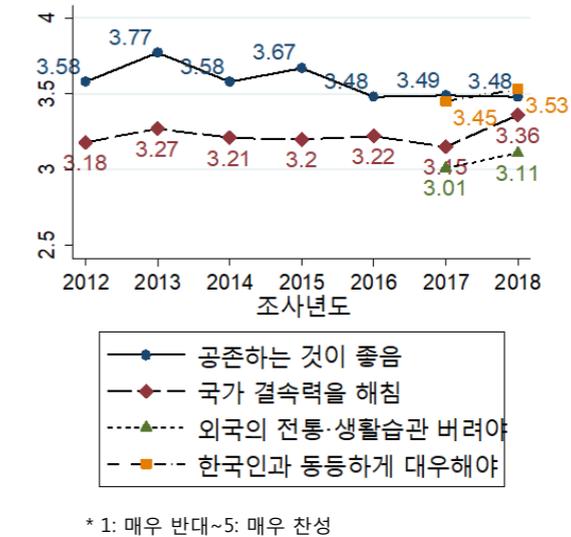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

문: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에 대한 견해

문: "다문화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1: 매우 반대~5: 매우 찬성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문: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다소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평균
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3	17.3	51.3	30.0	3.10
㉕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5	8.9	40.3	50.3	3.40
㉖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8	23.8	50.0	24.4	2.97
㉗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8	11.8	52.5	34.9	3.22
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7	12.6	49.1	37.7	3.24
㉙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3	9.2	38.7	51.9	3.42
㉚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7	7.8	51.7	39.8	3.31
㉛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3.3	26.8	43.8	26.1	2.93
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6	23.6	55.9	18.9	2.92
인종적 정체성					3.13
시민적 정체성					3.22

국민정체성: 탈북자와의 비교

항목	통일의식조사	북한주민의식조사
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10	3.12
㉕ 한국 국적을 갖는 것	3.40	3.57
㉖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97	3.26
㉗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22	3.30
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3.24	3.30
㉙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3.42	3.44
㉚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31	3.37
㉛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2.93	2.90
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2.92	3.45
인종적 정체성 (요인 평균)	3.13	3.23
시민적 정체성 (요인 평균)	3.22	3.3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문: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요인1(인종적) 요인적재값	요인2(시민적) 요인적재값
아이겐 값(Eigenvalue)	3.71	1.12
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72	0.11
㉕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35	0.56
㉖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70	0.21
㉗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54	0.40
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47	0.54
㉙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03	0.85
㉚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20	0.67
㉛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0.78	0.14
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0.72	0.11
< 요인 별 평균값 >		
인종적 정체성	3.03	
시민적 정체성	3.34	

* 방법: 주성분 요인분석, 분산최대화회전(varimax rotation)

국민정체성: 탈북자와의 비교

	통일의식조사		북한주민의식조사	
	요인1(인종적)	요인2(시민적)	요인1(시민적)	요인2(인종적)
아이겐 값	3.71	1.12	4.87	1.11
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72	0.11	0.12	0.83
㉕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35	0.56	0.84	0.08
㉖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70	0.21	0.35	0.68
㉗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54	0.40	0.75	0.28
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47	0.54	0.78	0.31
㉙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03	0.85	0.77	0.17
㉚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20	0.67	0.77	0.26
㉛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0.78	0.14	0.29	0.74
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0.72	0.11	0.80	0.31

탈북자 태도에 미치는 요인: 기존 연구 및 통제변수

- 현실적 갈등 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
 - 한정된 재화에 대한 경쟁이 집단 간의 갈등적 태도를 형성
=>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 한 집단이 공유하는 전통, 규범, 가치 등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
=> **“한국인인 것에 대한 자긍심”**
- 위협인식 이론(perceived threat)
 - 위협의 객관적 실재보다 중요한 것이 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
=> **“탈북자가 취업난을 야기”**
- 접촉 이론(contact theory)
 - 외집단에 대한 접촉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강화
=> **“탈북자 접촉 경험”**
- 다문화 수용성
 - 다문화에 개방적일수록 외집단에 긍정적 감정
=>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
- 기타 사회배경 변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성향**

탈북자 태도에 미치는 요인: 순위로짓 분석

< 탈북자 수용성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

변수	모델 1		모델 2 (기존연구 단순 요인평균)		모델 3 (요인분석 결과 단순 요인평균)		모델 4 (요인분석 결과 가중치 요인평균)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016***	(1.02)	0.017***	(1.02)	0.017***	(1.02)	0.017***	(1.02)
여성	-0.136	(0.87)	-0.126	(0.88)	-0.134	(0.87)	-0.132	(0.88)
소득수준	0.017	(1.02)	0.020	(1.02)	0.017	(1.02)	0.017	(1.02)
교육수준	0.116	(1.12)	0.106	(1.11)	0.111	(1.12)	0.108	(1.11)
보수이념	-0.138*	(0.87)	-0.140*	(0.87)	-0.133*	(0.88)	-0.133*	(0.88)
경제평가	0.450***	(1.57)	0.443***	(1.56)	0.447***	(1.56)	0.447***	(1.56)
국가자긍심	-0.212**	(0.81)	-0.168*	(0.85)	-0.176**	(0.84)	-0.177**	(0.84)
탈북자취업위험	-0.497***	(0.61)	-0.497***	(0.61)	-0.489***	(0.61)	-0.490***	(0.61)
탈북자 접촉	-0.079	(0.92)	-0.084	(0.92)	-0.092	(0.91)	-0.090	(0.91)
다문화수용성	0.538***	(1.71)	0.519***	(1.68)	0.511***	(1.67)	0.510***	(1.67)
인종적 정체성			-0.392***	(0.68)	-0.279**	(0.76)	-0.186**	(0.83)
시민적 정체성			0.175	(1.19)	0.040	(1.04)	-0.022	(0.98)
응답자수	1,199		1,199		1,199		1,199	
Log-Likelihood	-1104.18		-1100.29		-1101.50		-1101.5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종속변수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탈북자 태도에 미치는 요인: 순위로짓 분석

< 탈북자 친근감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

변수	모델 1		모델 2 (기존연구 단순 요인평균)		모델 3 (요인분석 결과 단순 요인평균)		모델 4 (요인분석 결과 가중치 요인평균)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196*	(0.82)	-0.193*	(0.82)	-0.195*	(0.82)	-0.196*	(0.82)
여성	0.016***	(1.02)	0.017***	(1.02)	0.016***	(1.02)	0.016***	(1.02)
소득수준	-0.041	(0.96)	-0.040	(0.96)	-0.040	(0.96)	-0.040	(0.96)
교육수준	0.287***	(1.33)	0.285***	(1.33)	0.288***	(1.33)	0.288***	(1.33)
보수이념	-0.001	(1.00)	-0.001	(1.00)	-0.001	(1.00)	-0.001	(1.00)
경제평가	0.471***	(1.60)	0.468***	(1.60)	0.468***	(1.60)	0.469***	(1.60)
국가자긍심	-0.168*	(0.85)	-0.161*	(0.85)	-0.153*	(0.86)	-0.154*	(0.86)
탈북자취업위험	-0.027	(0.97)	-0.027	(0.97)	-0.039	(0.96)	-0.035	(0.97)
탈북자 접촉	0.293**	(1.34)	0.291**	(1.34)	0.284*	(1.33)	0.285*	(1.33)
다문화수용성	0.400***	(1.49)	0.395***	(1.48)	0.403***	(1.50)	0.401***	(1.49)
인종적 정체성			-0.096	(0.91)	0.085	(1.09)	0.007	(1.01)
시민적 정체성			0.061	(1.06)	-0.154	(0.86)	-0.069	(0.93)
응답자수	1,199		1,199		1,199		1,199	
Log-Likelihood	-1377.25		-1377.01		-1376.65		-1376.9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종속변수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소결

-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탈북자와 다문화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
- 한국인은 인종적, 시민적 정체성 모두를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
 - 남한시민은 국민정체성으로 인종적 특성들을 더 명확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탈북자들은 시민적 특성들을 보다 명확히 연결
 - 남한시민은 한국어 사용을 인종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시민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 기존의 이주자 연구에서 국민정체성이 갖는다고 알려진 영향력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
 - 탈북자를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만 인종적 정체성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침
 - 같은 인종이면서 이주자라는 탈북자 집단의 특수성, 그리고 시민적 요인들을 명확히 연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탈북자 인식과 국민정체성 (요약)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탈북자 및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다른 이주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기위해 201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세 집단의 친근감을 비교

- 1) 전반적으로 다른 이주자 집단보다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 2)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소폭 오르긴 하였으나(2.98→3.02),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시계열적 추이는 큰 변화 없음

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고전적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를 변형한 사회적 거리에서도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거리는 특히 사업 동업자 및 결혼상대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이는 올해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통일과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고려할 때 두드러진 결과라 볼 수 있음

1) 남북관계의 진전과 긍정적인 통일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3.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

가. 이러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특히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1)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증가한 14.3%를 기록

2) 특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역대 최고인 56%를 기록, 탈북자의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줌

나. 마찬가지로 올해의 긍정적인 통일인식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 외라 할 수 있음

1)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질감과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

4. 탈북자 지원에 대한 견해

가. 탈북자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입장 역시 지난 10년간 긍정적 견해(이질화 해소, 정부지원 증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 견해(취업난 야기, 동등한 경쟁)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 특히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와 “탈북자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응답이 예년에 비해 높아져, 현재 한국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탈북자들에게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다문화에 대한 견해

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 1)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조사 시작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응답은 특히 올해의 조사에서 높아진 수치를 보임
- 2)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설문결과에 일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6.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가. 국민정체성이란 ‘일련의 국가성(nationhood)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을 일컫음

1) 한 나라의 국민됨이 국민정체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국민정체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2) 특히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다민족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나. 국민정체성은 크게 태생적, 혈연적 요인을 중시하는 ‘인종적 정체성’과 그 나라의 법, 질서, 규범에 따르는 것을 중시하는 ‘시민적 정체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본 설문에서는 기존연구의 선례를 따라 9가지 요인에 대한 견해를 조사

2) 9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가) 인종적 정체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 나) 시민적 정체성: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른 결과,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두 정체성 모두를 중시하지 만 시민적 정체성(3.22)을 인종적 정체성(3.13)보다 조금 더 중시하는 것으로

1) 하지만 비슷한 설문을 진행했던 기존연구의 결과들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외국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러한 분류법 및 항목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

7.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가. 기존의 분류법을 떠나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9가지 요인을 어떻게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

- 1)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추려내는 분석 방법으로, 국민정체성 분석에서 널리 사용됨

나. 요인분석 결과 우리 국민의 정체성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분류됨을 알 수 있음

- 1) 인종적 정체성: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 2) 시민적 정체성: 한국 국적을 갖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다.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시민적 특성보다는 인종적 특성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 1) 특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요인적재값은 인종적 요인(0.72)이 시민적 요인(0.11)보다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 2) 즉, 한국어를 한국사람처럼 구사하는 것을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거나(0.78)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0.72)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종적 요인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라. 반면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은 생득적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민적 정체성으로 분류

마. 국적 취득 역시, 비록 까다롭기는 하나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적 특성으로 생각

바.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 평균점수를 매겨보면, 인종적 정체성(3.03)보다 시민적 정체성(3.34)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보다 크게 나타남

- 1) 하지만 아이겐값(Eigenvalue)을 통해 볼 때, 시민적 요인보다는 인종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이 더 밀접한 것으로
=> 즉, 정체성 확립에 있어 시민적 요인이 인종적 요인만큼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8.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탈북자의 국민정체성과의 비교

가. 동일한 설문문항을 올해의 『북한주민의식조사』 연구과제를 통해 작년도에 탈북한 탈북자들에게도 조사

- 1) 남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국민됨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통일 및 통합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

나. 기존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본 결과 탈북자들은 남한시민들에 비해 인종적, 시민적 정체성이 모두 강하게 나타남

- 1) 두 정체성 사이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시민적 요인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다. 요인분석 결과는 두 집단 사이에서 조금 다른 결과를 보임

- 1) 먼저 아이겐값을 통해 볼 때, 시민보다 인종적 요인에 대해 명확한 연관성을 보인 남한시민에 비해 탈북자들은 시민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한국어 사용을 인종적 요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한시민과 달리 탈북자는 시민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3) 탈북자 역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사용 자체를 인종적 구분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는 반면, 오랜 분단으로 어휘 및 언어체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남한의 표준어는 후천적 학습을 통해 따라가야 할 시민적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9. 국민정체성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정체성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기존의 이론에서 인종적 정체성은 이주자 집단에 부정적 인식을, 시민적 정체성은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2) 하지만 탈북자는 혈연을 공유하는 같은 인종이면서 동시에 이주자라는 '이종적 지위'(손애리·이내영 2012)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영향력은 기존 이주자 집단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3) 이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여 통제된 후, 국민정체성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 - 친근감 및 수용성 - 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봄

나.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 결과, 어떠한 방식으로 인종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 변수를 구성하더라도 탈북자의 친근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1) 탈북자 수용에 대해서는 인종적 정체성 변수만 일관되게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다. 즉, 인종적 정체성을 강조할수록 탈북자의 수용에 부정적 견해를 가질 확률이 높음

1) 반면 시민적 정체성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은, 위 요인분석 결과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이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서로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10. 소결

가.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탈북자와 다문화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

1) 통일이란 거대담론에 대한 추상적 기대와, 실제로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2) 정책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통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 간의 갈등 및 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나. 우리 국민은 인종적, 시민적 정체성 모두를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

1) 보다 구체적으로 인종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요인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종적 특성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2) 이는 시민적 요인들을 보다 강하게 연결짓는 탈북자들의 국민정체성과 반대되는 결과

3) 남한 시민은 한국어 사용을 인종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시민적 정체성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기존의 이주자 연구에서 국민정체성이 갖는다고 알려진 영향력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 1) 탈북자를 친근히 느끼는 정도에 대해 인종적, 시민적 정체성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 2) 탈북자를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인종적 정체성만이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임 =>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인종적 요인을 강조할수록 탈북자의 무조건적 수용에 반대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종적 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3) 같은 인종이면서 이주자라는 탈북자 집단의 특수성, 그리고 시민적 요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연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2018 통일인식조사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발표 7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김 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희정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2018 통일의식조사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김 선, 김희정
서울대학교

서론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 ✓ '세대'란?
- ✓ 20-30 세대의 무관심과 낮은 통일 의식의 원인으로 '분단, 북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대경험'을 지목해옴
- ✓ 분단 모순적 상황과 세대간 통일의식 : '위협적 존재로서 북한' VS. '통일해야 할 상대로서 북한'
- ✓ 세대갈등과 통일교육
- ✓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통일의식 차이와 통일교육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세대별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결과

연구내용

연령대별 통일의식

- 통일의 필요성,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차이,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익
-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 한반도 전쟁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연령대별 통일교육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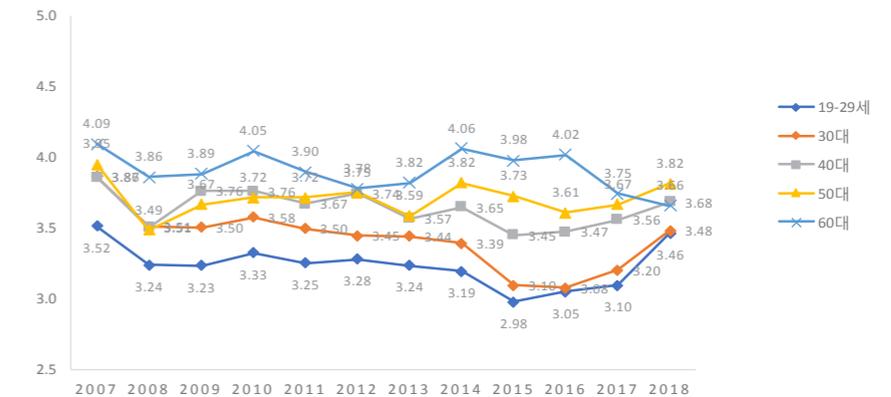
- 학교 통일교육 경험, 학교 외 통일교육 경험

연령대별 매체이용

- 매체이용방법, 매체이용 횟수, SNS 이용 횟수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Q.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50대>40대>60대<30대<20대 순으로 순위 변동.
- 60대 역대 최저, 20-30대, 40-50대 상승하여 연령대간 수렴현상.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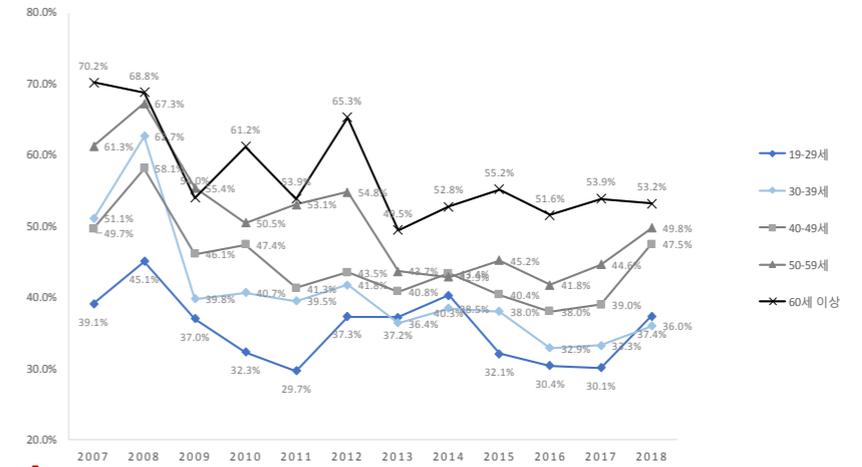
Q.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령대별 평균 차이의 추이는 연령대별 평균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연령대와 가장 낮은 점수의 연령대간 점수차를 기준으로 살펴봄.
- 2015년 연령대별 차이가 가장 큰 해이며, 2018년은 차이가 가장 작아진 해임.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 : 같은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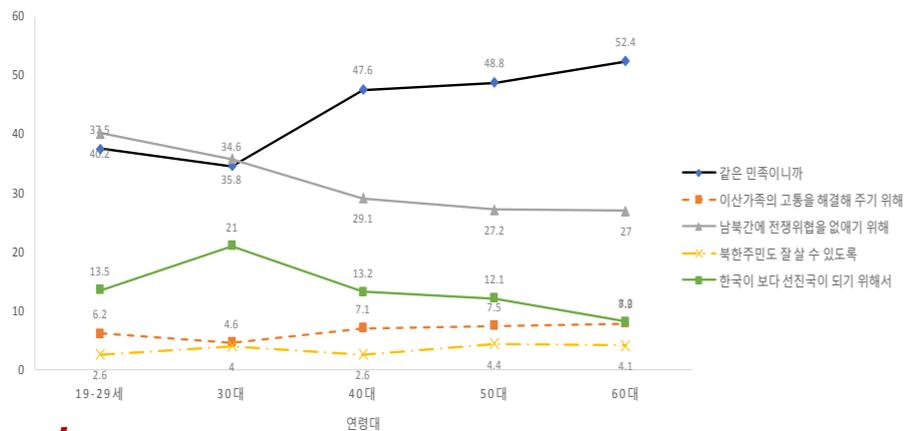
Q.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같은 민족' 이유 증가함.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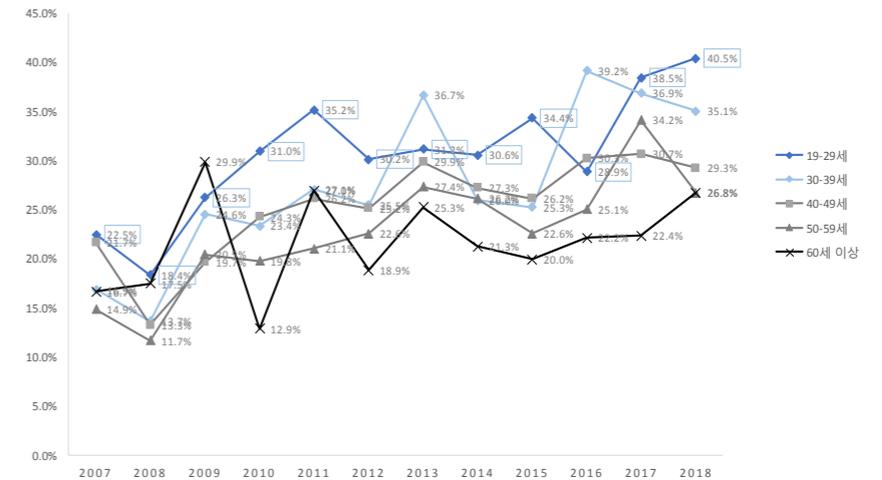
Q.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대-30대는 '전쟁위험해소'와 '같은 민족'을, 4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을 주 이유로 지목함.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 :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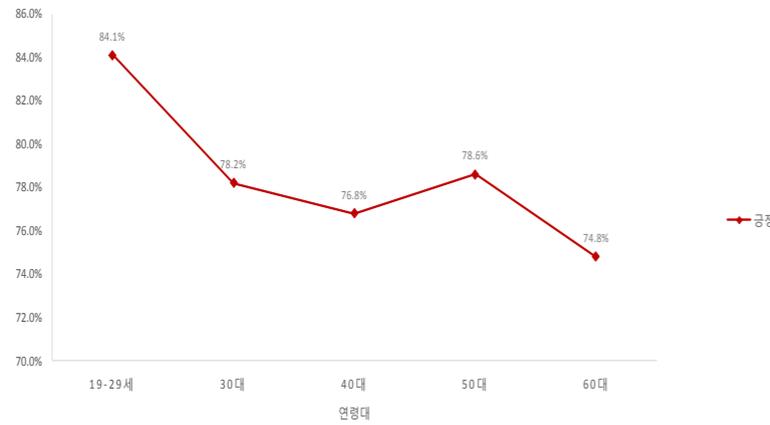
Q.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는 전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20대의 수치가 역대 최고치.

연령대별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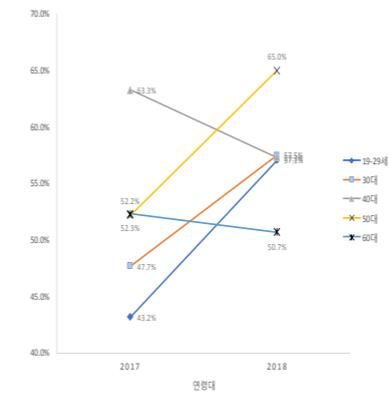
Q.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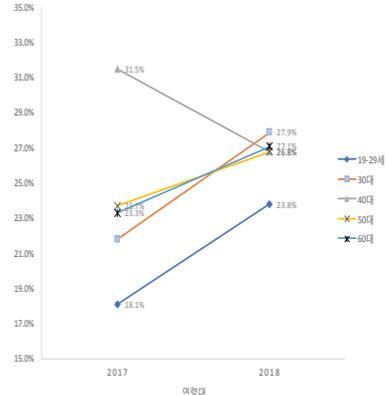
-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84.1%로 가장 높음.
- 60대가 7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연령대별 통일의 이익

Q.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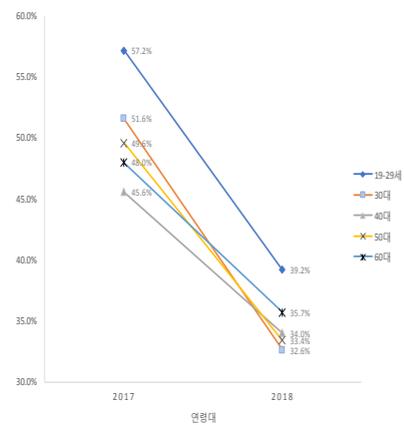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40대, 60대는 감소.
- 5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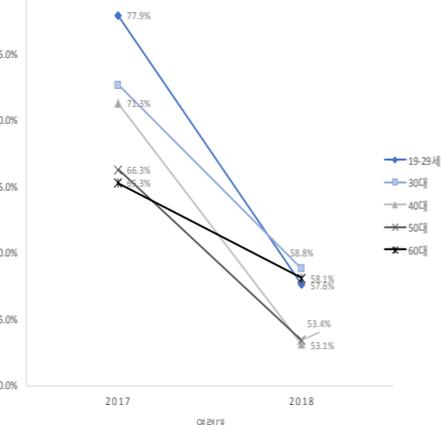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
- 20대가 가장 낮음.

연령대별 한반도 전쟁 가능성 및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Q.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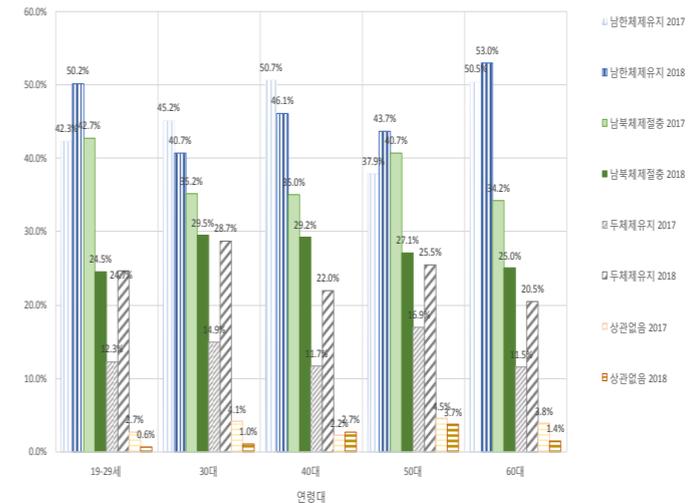


-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전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감소.
- 20대가 가장 높음.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전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감소.
- 20대의 변화폭이 가장 큼.

연령대별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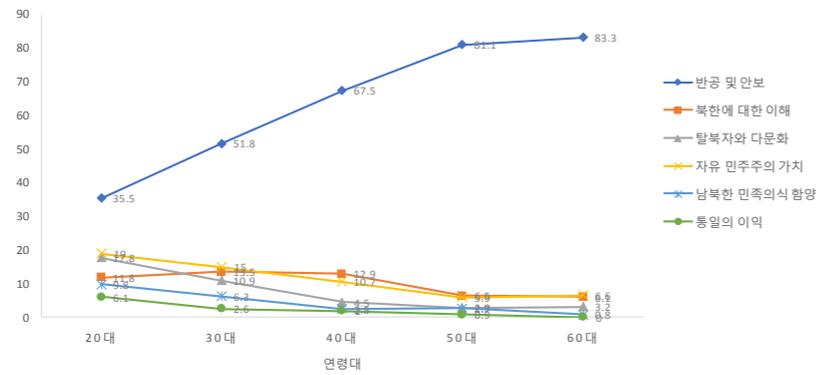
Q.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전 연령대에서 '두체유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 2018년 '남한 체제 유지'는 20대 42.3%→50.2%, 40대 37.9→43.8%, 60대 50.5%→53.0%로 증가하였고, 30-40대는 감소함.

연령대별 학교 통일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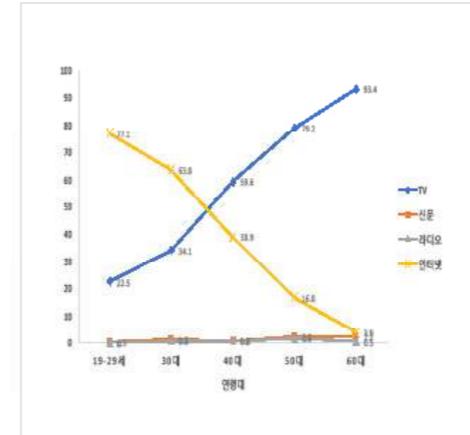
Q.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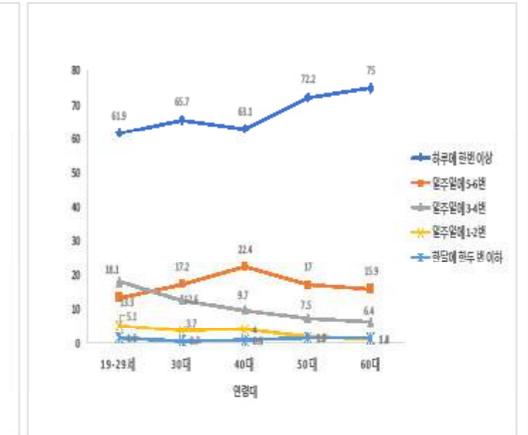
- ✓ 학교통일교육 경험은 전 연령대에서 '반공 및 안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반공 및 안보'의 경험 비율이 높아짐.

연령대별 매체 이용 방법 및 이용 횟수

Q.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느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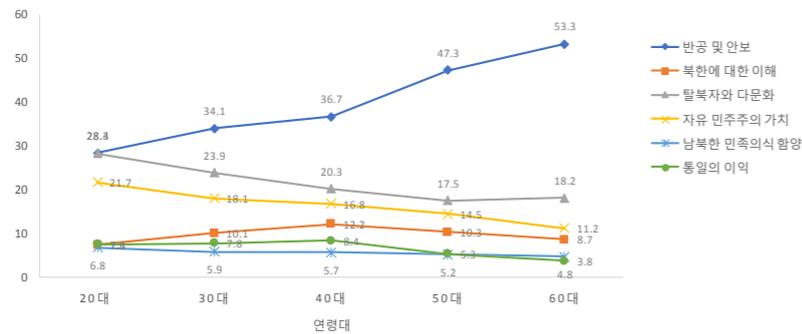
Q.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위에서 응답한 매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매체이용은 20-30대는 인터넷, 40대 이상은 TV를 가장 많이 이용함.
- 연령대별 매체이용은 '하루에 한번 이상' 이용이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 50-60대의 경우 70% 이상 나타남.

연령대별 학교 외 통일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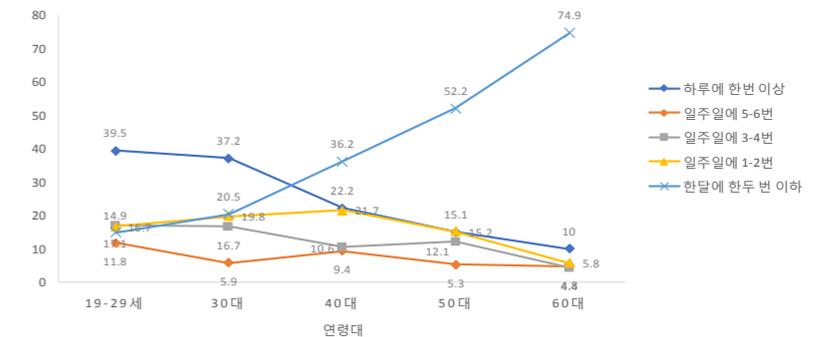
Q.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 ✓ 학교 외 통일교육 경험은 전 연령대에서 '탈북자와 다문화'가 2위로 나타남.
- 20대는 '반공 및 안보'(28.4%), '탈북자와 다문화'(28.3%)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반공 및 안보' 비율이 높아짐.

연령대별 소셜미디어 이용 횟수

Q. 뉴스나 정보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SNS이용은 20-30대는 '하루에 한번 이상', 40대 이상은 '한달에 한두 번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결론 및 논의

결론 및 논의

1 연령대별 통일의식

- 2018년은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수렴 현상으로 세대간 격차가 가장 줄어든 해임.
- 20대 통일의식에서 전향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불신과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음.

2 연령대별 통일교육경험

- 모든 연령대에서 통일교육 경험은 학교와 학교 외 모두 반공 및 안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균형 있는 통일교육적 접근이 요구됨.
-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 필요.

3 연령대별 매체이용

- 사회통일 교육 시 매체이용의 세대별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통일교육 시 매체를 활용하며, 특히 20-30세대의 통일교육 매체로 SNS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요약)

김 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희정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1. 서론

가. '세대' 개념은 종교, 인종, 젠더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종의 집단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대 개념은 개인과 집단의 기본적인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고유경, 2005). 특히 청년시기에 특정 시대적 배경을 경험함으로써 배태된 자연적 세계관이 이후 평생의 경험을 해석하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의식의 틀이 되므로(만하임, 2013:58) 청소년기 학교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경험과 학교 이외의 통일교육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세대'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나.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그간 통일교육은 소위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정권의 정치적 지향성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반공·안보교육과 평화공존교육 사이를 오가면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됨. 20~30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긍정적 기대가 낮고, 민

축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 20~30대의 부정적 통일의식과 세대간 갈등이 지적되어 왔음.

다. 시기적으로 지난 해 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전쟁설 등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올해 들어 2018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실시되며 평화무드로 반전됨. 변화의 시기 세대별 통일의식의 변화와 통일교육 경험과 매체이용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2. 연령대별 통일의식

가. 통일의 필요성

- 1)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차이는 여전히 존재
- 2) 2018년 늘 선두에 있었던 60대 수치가 50대보다 하락함. 통일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함.
- 3) 연령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던 20대의 상승된 변화가 두드러짐. 2018년 연령대별 평균 차이가 조사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듦. 지난 차이의 폭이 컸던 시기는 2010년(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대북 강경책) 2014년(세월호), 2016년(북한 무력 도발)로, 차이의 폭이 줄었던 시기는 2012년(김정은 체제 출범), 2018년(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으로 나타남.

나. 통일의 이유

- 1)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는 2018년 20~30대는 '남북 전쟁위험 해소'와 '같은 민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후는 '같은 민족'이 가장 높음.

- 2) 연령대별로 '통일의 이유' 각각의 추이를 살펴본 바,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산가족 고통 해소, 북한주민 삶 개선은 낮은 응답을 보이며 세대간 차이가 수렴되는 현상.

다.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 1)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20대에서 가장 높은 반면 60대가 가장 낮음.

라. 한반도 전쟁 가능성 및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전 연령대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작년 대비 감소함.
-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20대가 39.2%로 가장 높게 응답함.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서는 20대의 변화폭이 가장 큼.

마. 통일의 이익(남한, 자신)

- 1)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작년 대비 40대와 60대는 소폭 하락한 반면, 20대, 30대, 50대는 큰 폭으로 상승함.
- 2)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작년 대비 40대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함. 그러나 20대의 경우 23.8%로 통일이 개인적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바.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1) 전 연령대에서 '두체제 유지'의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함.

2) '남한 체제 유지'는 20대, 40대, 60대는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30~40대는 감소함.

3. 연령대별 학교 및 학교외 통일교육 경험

가. 학교통일교육 경험

1) 반공 및 안보 교육의 비율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 순위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의 순위로 연령대별로 다름.

2) 학교통일교육 경험 연령대별 순위

가) 19~29세 : 반공 및 안보(35.5%) > 자유민주주의 가치(19.0%) > 탈북자와 다문화(17.8%)

나) 30대 : 반공 및 안보(51.8%) > 자유민주주의 가치(15.0%) > 북한에 대한 이해(13.5%)

다) 40대 : 반공 및 안보(67.5%) > 북한에 대한 이해(12.9%) > 자유민주주의 가치(10.7%)

라) 50대 : 반공 및 안보(81.1%) > 북한에 대한 이해(6.5%) > 자유민주주의 가치(5.9%)

바) 60대 : 반공 및 안보(83.3%) > 자유민주주의 가치(6.6%) > 북한에 대한 이해(6.1%)

나. 사회통일교육 경험(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

1) 전 연령에서 반공 및 안보 교육,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순으로 동일함.

2) 사회통일교육 경험 연령대별 순위

가) 19~29세 : 반공 및 안보(28.4%) > 탈북자와 다문화(28.3%) > 자유민주주의 가치(21.7%)

나) 30대 : 반공 및 안보(34.1%) > 탈북자와 다문화(23.9%) > 자유민주주의 가치(18.1%)

다) 40대 : 반공 및 안보(36.7%) > 탈북자와 다문화(20.3%) > 자유민주주의 가치(16.8%)

라) 50대 : 반공 및 안보(47.3%) > 탈북자와 다문화(17.5%) > 자유민주주의 가치(14.5%)

마) 60대 : 반공 및 안보(53.3%) > 탈북자와 다문화(18.2%) > 자유민주주의 가치(11.2%)

4. 연령대별 매체이용

가. 20~30대는 인터넷을, 40대 이상은 TV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나. 매체이용 횟수는 '하루에 한번 이상' 이용이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 나타났으며 50~60대는 70% 이상 나타남.

다. 소셜미디어 이용은 20~30대는 '하루에 한번 이상', 40대 이상은 '한달에 한두 번 이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5. 결론 및 논의

가. 20~30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쟁가능성 인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통일의식의 전향적 변화를 보여주었음.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응답 이외에도 여전히 전쟁가능성과 무력도발 등에서 높은 응답을 보여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나. 통일 한국의 체제와 같이 남북한 통일 후 통합에 관련된 응답에서 전 연령대에서 2017년 대비 두체제유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남북체제절충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다.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은 학교와 학교외 모두 반공 및 안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학교 외 교육경험은 전 세대에 동일하게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의 순위로 동일하게 나타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균형있는 통일교육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프레임을 통일이 국가 차원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삶에 연계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라. 추후 세대별로 경험하였던 통일교육의 내용이 현재 통일의식과의 관계성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요구됨.

마. 20~30대 세대의 통일의식 증진을 위해, 북한과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통일교육적 접근과 SNS를 통해 이러한 경험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방법론적 모색 필요.

memo

memo

memo

memo
